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벼농사의 역사지리적 연구

-하논·천제연·종달 일대 지역을 사례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정 근 오

2014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도 벼농사의 역사지리적 연구

-하논·천제연·종달 일대 지역을 사례로-

지도교수 오 상 학

정 근 오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정근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제주도는 쌀을 주식으로 삼는 문화권이지만 쌀이 귀했다. 육지에서 쌀을 들여오기 힘든데다 벼농사도 마음껏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제주도내에서도 단 1%의 지역에서만이 쌀을 생산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벼농사를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질 특성의 영향으로 인해 물을 가둘 수 있는 논(水田)을 만드는데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쌀을 생산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그 개척과정을 문헌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해 연구했다.

제주도 벼농사 지역의 변화 양상을 시대별로 분류했다. 조선시대에는 습지나 상시 하천과 주변에 물의 풍부한 지역에서 벼농사를 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수로를 이용해서 밭으로 사용했던 일부지역도 벼농사를 행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저수지와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벼농사를 했었으나, 쌀값이 떨어지면서 벼농사는 자연스럽게 폐작되었다. 쌀은 인구부양력이 높은 식량작물이면서 고소득 작물이었고, 또한 유교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물이었다.

제주도에서 쌀을 재배하려면 용천이 풍부하게 나면서 넓은 평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는 일부 마을만이 벼농사를 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토목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리시설의 확충과 간척 등을 통해 벼농사를 하려 했던 것도 쌀이 고소득 작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도외지역에서 쌀이 풍부하게 들어오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벼농사를 하는 것도 큰 소득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밭농사보다 더 낮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이 폐답이 되었으며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하논에서만 벼농사가 재개되었다.

하논이나 천제연 일대의 논은 소규모의 경지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쌀을 순수한 이익 창출이 아닌 상례용 쌀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예를 들면 천제연 일대 벼농사지역에서 수확한 쌀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먹을 쌀이 없었다고 한 사실로 보아 쌀은 제사 때 반드시 필요한 작물이었고, 유교적 문화가 남아있는 제주에서 식량이상의 문화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쌀은 밥이나 떡으로 만들어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는데 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례문화 중에서 장례문화를 크게 여겼던 제주도에서는 장례를 한번 치를 때마다 많은 양의 쌀을 사용해야만했다.

제주도에서 벼의 재배 기간은 약 6개월인데 직파의 경우 청명이 지난 이후에 파종하고 이앙한 경우에는 장마철에 맞춰 모내기를 하며 수확은 10월 초순 전후로 한다. 벼농사는 밭갈이로부터 시작해서 수확과 탈곡에 이르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경종이후에는 물관리와 논매기, 구제 등을 통해 쌀을 생산했다.

본 논문의 사례지역은 서귀포시 서홍동과 호근동에 위치한 하논, 중문동 천제연 일대, 종달리 간척지로 선택했다. 하논의 경우에는 15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벼농사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며,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란 점에서 주목하였다. 중문동 천제연 일대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벼농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토지는 평탄하고 넓었으나 물이 부족하여 벼농사를 할 수 없었던 지역에 수로를 건설하여 벼농사를 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종달리는 해방이후에 벼농사가 이루어진 지역인데, 일제강점기에 논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었다가, 해방이후에 염전으로 활용되던 간척지를 논으로 개답하여 벼농사를 지었었다.

하논에서는 현재 한 가구가 기계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중문동이나 종달리는 이미 오래전에 벼농사를 그만 두었다. 중문동의 경우에는 중문 관광단지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벼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종달리의 경우에는 쌀값이 떨어져 본업인 밭농사에 더 집중하면서 폐답이 되었다.

제주도의 벼농사는 규모나 기간 면에서 도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밭농사에 의존하는 제주도 농촌경제의 특성상 현 시점에서는 논이 일부 남아있어도 대부분 벼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는 벼농사 재배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행하고 있는 벼농사지만 제주도에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농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벼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역사지리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제주도, 벼농사, 하논, 천제연, 종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차 례〉

I.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1

1) 연구 배경 ····· 1

2) 기존연구 검토 ····· 2

3) 주요 연구내용 ····· 4

2. 연구지역 설정 및 연구방법 ····· 6

1) 연구지역 선정 배경 및 연구범위 ····· 6

2) 연구방법 ····· 6

II. 제주도 벼농사의 전개과정 ····· 10

1. 고대 ~ 조선시대 ····· 10

1) 논의 분포 ····· 10

2) 수리시설 ····· 19

3) 농법과 토지소유관계 ····· 21

2. 일제강점기 ····· 29

1) 논의 면적과 생산량 ····· 29

2) 수리시설 ····· 31

3) 농법 ····· 34

3. 해방이후 ····· 35

1) 논의 면적과 생산량 ····· 35

2) 수리시설 ····· 37

3) 농법과 생활양식 ····· 38

III. 사례지역연구 ····· 46

1. 서귀포시 하논 ····· 46

1) 연구지역 개관 ····· 4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하논의 개척과 영농의 역사 ····· 47
2.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 일대 ····· 55
1) 연구지역 개관 ····· 55
2) 논의 개척과정 ····· 56
3. 종달리 간척논 ····· 71
1) 연구지역 개관 ····· 71
2) 종달리 벼농사의 전개과정 ····· 73

IV. 요약 및 결론 ····· 78

참고문헌 ····· 81

부록 ····· 88
1. 제주도 쌀 생산 면적과 생산량 ····· 88
2. 인터뷰 - 하논 답사 인터뷰 내용 ····· 90
3. 인터뷰 - 중문 천제연 답사 인터뷰 내용 ····· 94
4. 인터뷰 - 강정 답사 인터뷰 내용 ····· 9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차례〉

〈표 1〉 조선시대 지리지에 기록된 논 면적 ····· 16
〈표 2〉 속인과 속지로 구분한 조선시대 제주도 논 ····· 17
〈표 3〉 벼농사의 농사력 비교 ····· 22
〈표 4〉 제주도 인구와 쌀 생산 면적 · 생산량(일제강점기) ····· 29
〈표 5〉 제2수답 논풀이 기념 공덕비 ····· 76
〈표 6〉 제주도 쌀 생산 면적과 생산량 (1952~2012) ····· 8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차례〉

〈그림 1〉 한라장촉(1702) 중 대답(大畓) ····· 7
〈그림 2〉 1872군현지도(정의군, 1895 이후) 중 대답(大畓) ····· 8
〈그림 3〉 제주도 벼농사 분포지역 ····· 10
〈그림 4〉 구시물 일대 논 ····· 11
〈그림 5〉 내도·이호 논 ····· 12
〈그림 6〉 탐라순력도 중 명월조점(1702) ····· 13
〈그림 7〉 옹포천과 명월답의 현재모습 ····· 13
〈그림 8〉 미나리꽝으로 이용되는 명월답 ····· 13
〈그림 9〉 속인과 속지로 비교한 조선시대 제주도 논 ····· 18
〈그림 10〉 1869년 명월답 매매문서 ····· 24
〈그림 11〉 광서오년 상환기 ····· 26
〈그림 12〉 1869년 방수답 토지매매증서 ····· 27
〈그림 13〉 선흘곶 및 목장 내 강못 모식도(좌)와 강못 벼농사 추정지(우) ····· 30
〈그림 14〉 중문동 일대 논 개간에 관한 문서 ····· 31
〈그림 15〉 1968년 농촌풍경 ····· 35
〈그림 16〉 해방이후 논의 면적변화 ····· 36
〈그림 17〉 용수(서부)저수지와 논 ····· 37
〈그림 18〉 클을 이용하여 탈곡하는 모습 ····· 44
〈그림 19〉 하논 연구지역 개관 ····· 46
〈그림 20〉 하논의 실제모습 ····· 47
〈그림 21〉 신증동국여지승람(제 38권 전라도 정의현) 중 삼매양악 ····· 48
〈그림 22〉 하논 일대 논 지구 추정 복원도 ····· 49
〈그림 23〉 물망소 ····· 50
〈그림 24〉 하논 동쪽 배수로 ····· 50
〈그림 25〉 하논 수문 ····· 50
〈그림 26〉 하논 수로 ····· 5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27〉 하논의 지적도와 일부 경지 세부구역 ····· 52
〈그림 28〉 하논 모내기 후의 전경 ····· 54
〈그림 29〉 중문 천제연 연구지역 개관 ····· 55
〈그림 30〉 천제연 1폭포(ⓐ) ····· 57
〈그림 31〉 섯골수로 시작지점(ⓑ) ····· 57
〈그림 32〉 중문 천제연 수로 조성 당시의 수로와 논 복원도 ····· 58
〈그림 33〉 화폭목(ⓒ) ····· 59
〈그림 34〉 화폭목 공사흔적(ⓒ) ····· 59
〈그림 35〉 웃골수로 시작지점(ⓓ) ····· 60
〈그림 36〉 알골수로 시작지점(ⓔ) ····· 60
〈그림 37〉 계약증서 ····· 60
〈그림 38〉 후고증서 ····· 62
〈그림 39〉 훼손된 섯골수로(ⓕ) ····· 67
〈그림 40〉 현재 웃골수로의 모습(ⓖ) ····· 67
〈그림 41〉 천제연 일대의 토지이용변화 ····· 68
〈그림 42〉 퍼시픽랜드로 이용되고 있는 개여물케 일대(ⓗ) ····· 69
〈그림 43〉 제주국제평화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오름골일대(ⓘ) ····· 69
〈그림 44〉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너배기 일대(ⓙ) ····· 69
〈그림 45〉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색달천 하구일대(ⓚ) ····· 69
〈그림 46〉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유적비 ····· 70
〈그림 47〉 종달리 논 ····· 71
〈그림 48〉 구좌읍 종달리 일대 지형변화 ····· 72
〈그림 49〉 종달리 간척논 개관 ····· 72
〈그림 50〉 제1수전의 1980년대 모습 ····· 73
〈그림 51〉 제1수전의 제방 ····· 73
〈그림 52〉 제1수전 현재모습 (②) ····· 74
〈그림 53〉 제1수전 제방의 현재모습 (①) ····· 74
〈그림 54〉 종달리 제2수전의 모습 ····· 74
〈그림 55〉 제2수전 제방 (④) ····· 7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56〉 제2수전 수문 (③) ····· 75
〈그림 57〉 소금생산 이후 종달마을의 토지이용 변화 ····· 75
〈그림 58〉 제2수전의 도수로 (⑤) ····· 77
〈그림 59〉 종달리 정미소 (⑥) ····· 7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면적 1.8%(국토교통부, 2014), 인구 1.1%(통계청, 2012)를 차지하는 도(道)이고, 그 안에서 논이 차지하는 경지 면적은 1938년 당시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경지면적 91,220.8㏊(91,981정보) 가운데 974.9㏊(983정보)로 약 1%를 차지한다(제주도청, 1939).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대한민국 1%의 1%인 제주도의 벼농사를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제주도는 쌀을 주식으로 삼는 문화권이지만 육지에서 쌀을 들여오기 힘든데다 벼농사도 마음껏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제주도내에서도 단 1%의 지역에서만이 쌀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쌀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그 개척 과정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했다.

제주도에서 벼농사를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질 특성의 영향으로 인해 물을 가둘 수 있는 논(水田)을 만드는데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까지 논이 있었던 지역 대부분은 해안가 습지 혹은 제주도내에서는 드물게 존재하는 상시하천 주변에 평평한 곳이 대부분이었다(조선총독부, 1929).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자연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벼농사를 한 곳도 있었고(이성무, 1996), 해방이후에도 수리시설을 확충하거나 간척을 통해 논풀이를 한 지역도 있었지만(김승태 외, 1987)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벼농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투수성이 높은 기반암 때문이었는데, 간혹 물이 풍부하게 용출되어 그 물을 벼농사에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논으로 만들고 벼농사를 하는 과정은 세심한 손길이 필요했다. 물이 나오는 곳에 위치한 물머리논은 물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풍부한 용천수가 오히려 농사에 방해가 되었고 그 논의 아래쪽에 위치한 깍논의 경우에는 물공급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물이 다 빠져버려 벼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만의 수리시설과 물관리법, 그리고 농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논은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었는데, 흉년, 기근, 빚, 가난 등으로 인해 농사의 결실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척박한 토양으로 연작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논을 거래했던 기록이 남아있었다(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제주민속박물관 소장자료). 논은 쌀을 생산하는 중요한 농경지였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기 전인 1970년대까지도 비싸게 거래되었다[1]. 논은 밭보다 세 배 넘게 비싼 값을 받았으나, 쌀이 흔해진 지금은 논으로 지목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밭보다 토지가격이 낮은 실정이다[2].

이런 상황은 제주도민이 어렵게 일구어온 벼농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육지에서 쌀이 충분히 공급되고 쌀값도 하락하면서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밭농사를 짓는 것이 같은 노력에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제주도의 벼농사는 조만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벼농사의 명맥이 끊긴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는 벼농사를 할 줄 아는 노동인력이 없다. 현재 제주도 논에서 벼농사를 하는 곳은 '하논' 한 곳 뿐이다. 이곳은 한 부부만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임대농이기 때문에 이곳의 벼농사 역시 사라진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벼농사 경험이 남아있는 촌로들이 생존해있고, 작게나마 벼농사의 명맥이 남아있는 현 상황이 제주도 벼농사를 생생히 연구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 연구 분야를 역사지리학으로 선택한 이유는 한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존연구 검토

벼농사에 대한 지리학계의 연구는 이찬(1963)의 연구와 김상호(1969)의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가 있지만, 제주도의 벼농사에 대해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중 주목할 만한 연구에는 박태훈 · 고은경 · 현진미(1999)의 연구와 고영기(1996)의 연구가 있다. 박태훈 · 고은경 · 현진미(1999)의 연구는 문헌을 통해 제주도 벼농사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현장

1) 제보: 김갑득 · 윤광제(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답사를 통해 폐답 사례 등을 연구했다. 이 논문에서 밝힌 제주도 논의 폐답 원인에는 수익성 저하, 수량 부족, 관광지 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자연재해, 염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 등이 있었다. 이 논문은 제주도 벼농사의 쇠퇴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 많은 영감을 준 연구이나, 당시 논문이 저술될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점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 벼농사를 다룬 고영기(1996)의 연구는 제주도의 벼농사를 구축하게 된 과정과 벼농사를 짓는 방법, 물을 끌어온 방법, 논을 축조한 과정 등에 대해 고찰하여 제주도 벼농사의 연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이 논문은 제주도 벼농사를 전반적으로 조사 한 점에서 좋은 시도였으나 주장한 바를 뒷받침할 근거가 다소 부족한 점은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영기(1996)의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제주도 벼농사에 다룬 또 다른 연구인 고광민(2004)의 저서는 제주도 광령·대포지역의 벼농사에 대한 실질적인 과정과 영농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연구이나 이앙법은 제외한 채 직파법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앙법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조선시대 벼농사에 대한 지리학적 관점의 논문은 노도양(1968), 이준선(1998), 정치영(2004b)의 연구를 참고했다. 노도양(1968)은 15세기 조선의 농목업에 대한 연구에서 조선시대 농업과 농기구 그리고 수리시설에 대한 내용을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톺아보았다는 점에서 역사지리에서 조선시대 농업연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에 정치영(2004b)의 조선시대 농법 연구로 이어졌는데, 정치영(2004b)은 「농사직설」, 「금양잡록」, 「산림경제」, 「임원경제지」와 같은 조선시대 농법서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농법의 전반적인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는 당시 사용된 벼의 품종, 경종법, 시비법, 수리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제주도사례는 기록된 것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벼농사의 일반론만 인용하였다. 이준선(1998)의 연구는 강릉지역 석호인 경포대를 중심으로 그곳의 저습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는 과정을 조선후기를 기준으로 전후로 비교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영감을 주었다. 조선시대 벼농사의 농법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를 통해 경종, 시비, 제초, 수확 등 벼농사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전국 규모로 기록한 이 논문을 본고에서 제주도의 벼농사와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보았다.

조선후기 제주도 논의 토지소유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더 깊게 알아보고자 김영란(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영란(2010)은 조선 후기의 제주도의 토지 매매에 관해 연구하면서 논의 거래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논의 가치와 거래면적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다만 토지 매매 문서가 남아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 한정된 지역과 사례만을 볼 수밖에 없는 점은 한계로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3)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가 가진 특별한 자연환경에서 나타나는 벼농사 개척 과정과 수리시설의 확보 방법, 농법과 토지소유 관계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연구 시기는 고대~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세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각 시기마다 논의 분포, 수리시설, 생산량, 유통과 소비, 경영형태, 농법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연구시기를 '고대~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세 시기로 나눈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대~조선시대'는 제주도에 벼농사가 개척되어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연구시기 중에 하나로 설정했는데, 항파두리에서 삼별초의 영향을 받아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고영기, 1997; 김봉옥, 1987),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고대부터 조선시대로 한 시기를 구분했다. '일제강점기'는 수리조합이 본격적으로 수리시설을 만드는 시기이며 근대적인 토목기술과 농법이 전파되어 농업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이다(손경희, 2006). 해방이후를 시기로 설정한 이유는 현대적 수리시설과 농법이 나타났던 시기이면서 제주도 벼농사가 쇠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기구분 한 것을 바탕으로 사례지역 연구를 통해 각 사례지역별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서술을 시도했다. Ⅱ장 '제주도 벼농사의 전개과정'에선 제주도 벼농사 전체를 시기와 항목별로 구분해 거시적 접근을 했고, Ⅲ장 '사례지역연구'에서는 이를 사례지역 안에서 종합적이고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각 사례지역별 벼농사 개척과정에서부터 현재 모습에 이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내용을 기술했다.

본 논문은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문헌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세부 내용으로 논문을 전개했다.

첫 번째 내용은 지도, 읍지, 향토지 등의 문헌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해 논의 개척과정과 분포를 밝힌 것이다. 논의 개척과정은 자연입지가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척한 지역 그리고 간척을 통해 논을 조성한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서술하였고, 그 분포를 지도를 통해 밝혀 보았다.

두 번째 내용은 고문서와 현장 답사를 통해 수리시설, 농법,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것이다. 수리시설은 벼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서 만든 부분이었다. 특히, 수감(水監)을 두어 물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농법의 경우에는 도외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시기상의 차이점은 없었는지, 제주도의 벼농사 농법은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토지소유관계의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조선후기 토지 매매문서를 바탕으로 거래내역과 이유 등을 파악하여 당시 논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자작농과 소작농의 관계와 대규모 토목공사 이후에 논이 분배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톺아보았다.

세 번째 내용은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세 시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벼농사지역 세 곳을 선정하여 사례지역을 연구한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벼농사를 하고 있는 서귀포시 서홍동과 호근동에 위치한 '하논'과 일제강점기에 수리시설을 건설하여 벼농사를 시작했던 중문동에 위치한 천제연 일대지역, 그리고 해방이후 간척을 통해 벼농사를 지었던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일대 간척논을 선정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연구지역 설정 및 연구방법

1) 연구지역 선정 배경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연구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벼농사 경험자들의 제보와 지적도를 통해 지목이 답(畓)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과 각 마을지를 참고하여 벼농사의 기록이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벼농사 연구지역을 설정하였다. 연구지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 지역은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따로 서술하였다. 주요 연구지역에는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동명리,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강정동, 정방동, 대정읍 신도리 일대가 있었다. 이 지역들은 논의 면적이 넓고 자연발생적으로 벼농사를 할 수 있었으며 조선시대부터 벼농사를 지었던 지역이란 점에서 중요한 지역이나 하논과 성격이 비슷하고 현재는 벼농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례지역으로는 선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도 벼농사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 넣어 서술하였다.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은 서귀포시 서홍동과 호근동에 위치한 하논과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일대의 벼농사지역,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위치한 간척논이다. 하논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른 시기인 조선시대(15세기)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벼농사를 행했다는 점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기록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 때문이다. 중문동 천제연 일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배경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사이에 벼농사를 시작한 시기상의 차별성과 더불어 토목기술의 발달로 수로를 통해 멀리 있는 농지까지 관개 하여 벼농사를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기 때문이다. 벼농사를 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의 노동력을 모아 수로를 만들고 논풀이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도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구좌읍 종달리 간척논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배경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간척지에서 염전으로, 또 염전에서 논으로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었던 점이 특징적이었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연구 주제를 서술하기 위해 크게 문헌연구와 현지 조사를 통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구를 진행했다. 문헌연구는 지도류와 문헌, 사료를 이용했고, 현지조사는 현장답사를 통해 직접 현장을 관찰하고 촌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들을 확인했다. 우선 문헌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도류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토지이용과 지형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지도, 조선지형도(1918), 지적도, 수치지형도 등을 사용하여 연구지역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아 활용하였다. 「한라장촉」(1702)〈그림 1〉, 「탐라지도병서」(1709), 「영주산대총도」(1721 추정), 「제주삼읍전도」(1872), 「1872군현지도」(정의군, 1895 이후 제작)〈그림 2〉 등의 고지도는 하논의 과거 모습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고, 지적도는 제주도에 분포한 논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또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도 유효했다. 수치지형도는 GI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축출하여 논을 입체적으로 보기 쉽게 표현하는데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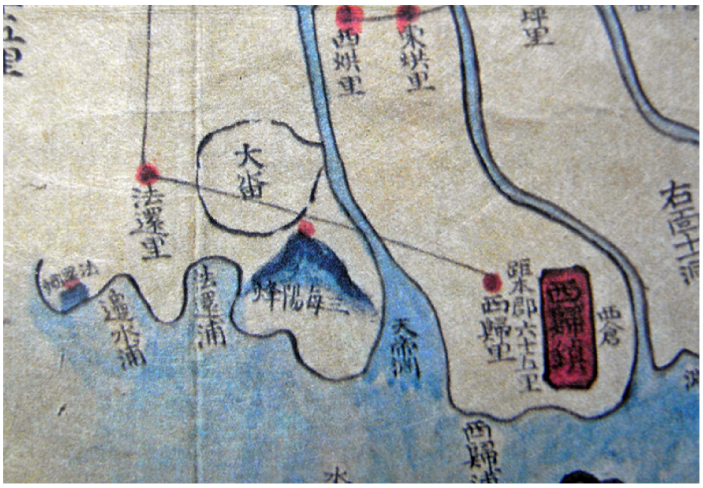


<그림 1> 한라장촉(1702) 중 대답(大畓)

논 지역을 알기 위해서 여러 문서를 참고했다. 각 마을의 정보는 마을마다 출간한 향토지를 참고했다. 각 마을별로 출간한 향토지에는 그 지역의 농업, 농사풍습, 농기구, 관련민담과 속담 등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 벼농사를 지었다고 기록된 향토지는 강정, 고산, 법환, 예래, 중문, 종달, 광령, 성산 등이 있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벼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 있었다. 더불어 지적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해 보았다. 마을지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제작된 지리지를 통해서도 제주도 벼농사의 규모와 쓰임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 제주읍지(1899)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논의 경우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제38권 전라도 정의현)과 「탐라지」(이원진, 1653)에 논풀이과정이나 하논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제주도세요람」(1937, 1939)이나 「생활상태조사」(1929)를 통해 제주 농업의 과거 모습을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었고, 해방 이후자료는 「제주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제주도 논의 규모와 생산량 변동의 추이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중문 천제연 일대의 논의 경우에는 논풀이에서부터 폐답까지의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답주들이 이 지역 논을 논풀이하고 유지하면서 사용했던 답주문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더불어 제주 지역의 논을 거래했던 기록인 조선후기 토지매매문서가 남아있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톺아보았다.



<그림 2> 1872군현지도(정의군, 1895 이후) 중 대답(大畓)

현지조사에서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재모습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진자료를 구했으며, 직접 벼농사를 했었던 촌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벼농사의 구체적인 구술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진과 구술 자료는 2013~2014년에 실시했던 현지답사 때 구한 자료들이다. 본 연구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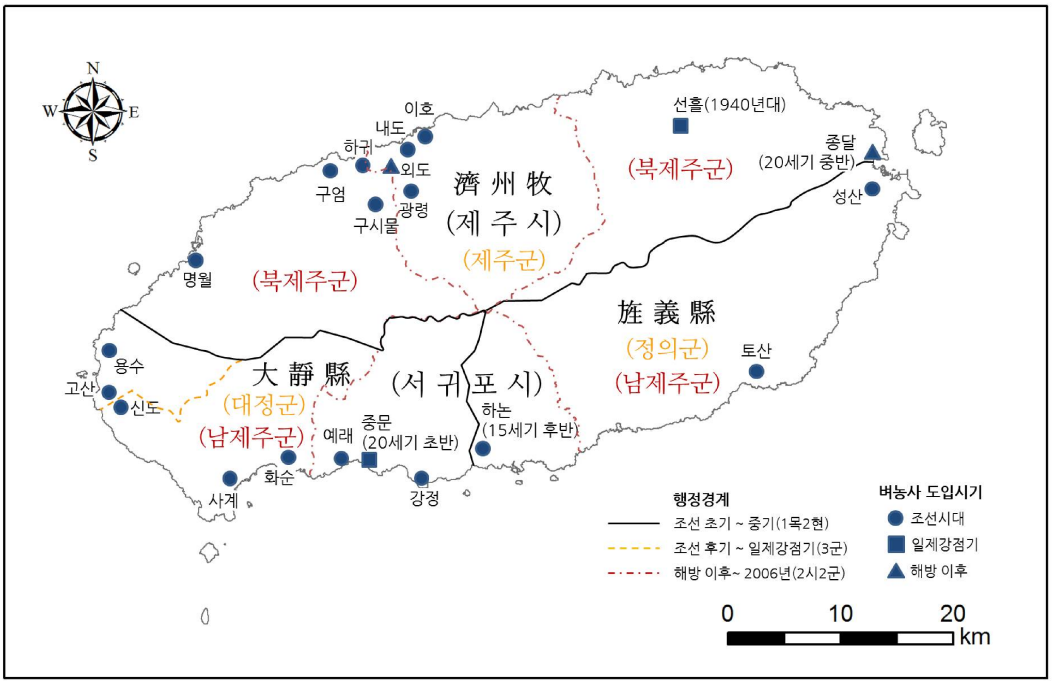
실린 사진은 이 시기에 촬영된 것이다. 사진은 논의 현재모습을 기록하고 표현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했고, 특히 구술 자료를 통해서는 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주도 논의 일반적인 농사방법과 더불어 각 마을별로 갖고 있는 특징들을 담을 수 있었다. 벼농사 경험자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벼농사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담아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제주도 벼농사의 전개과정

1. 고대 ~ 조선시대

1) 논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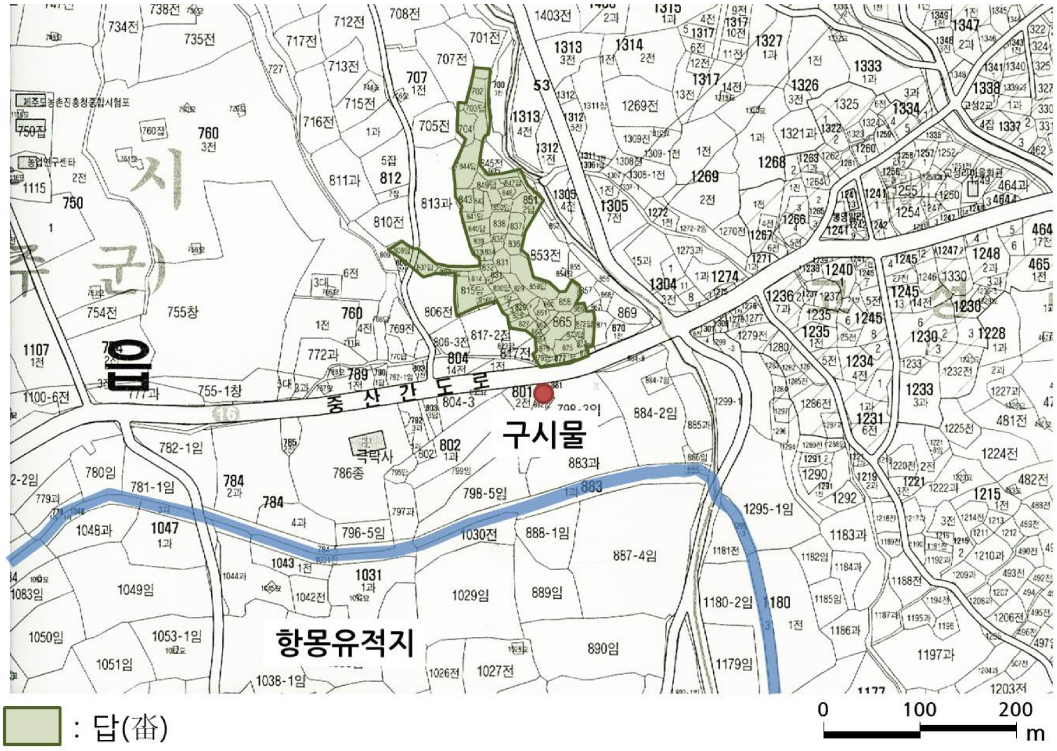
<그림 3> 제주도 벼농사 분포지역

(출처: 김승태 외, 1987; 남제주군 성산읍, 2005; 도리국민학교 편, 1987; 북제주군 광령1리, 1990;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2000; 윤경로, 2001; 이성무, 1996; 정광중, 2011; 한일지도판매주식회사, 2006.)

〈그림 3〉은 제주도 벼농사 지역을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지도이다.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의 경계는 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설정했다. 이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3군체제로 바뀌면서 변한 경계는 행정구역의 이름과 함께 점선으로 표기하였고, 해방이후부터 2006년까지의 경계는 파선으로 표기하였다. 시대별 경계를 모두 표시한 이유는 지역별로 달랐던 벼농사 도입시기를 한 장의 지도에 표기하기 위함이다. 조선시대 논이 분포했던 지역은 제주목의 경우에는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던 항파두리 유적 부근의 '구시물'과 함께 물이 풍부한 해안지역의 이호, 내도, 외도, 귀일, 명월 등지에 위치했었다. '구시물'은 삼별초가 제주로 옮겨 원나라와 항쟁을 하는 과정에서 벼농사가 전파되었다(김봉옥, 198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추정되는 지역이다. 항파두리 내에서도 벼농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지역 답(畓)도 지적도에 남아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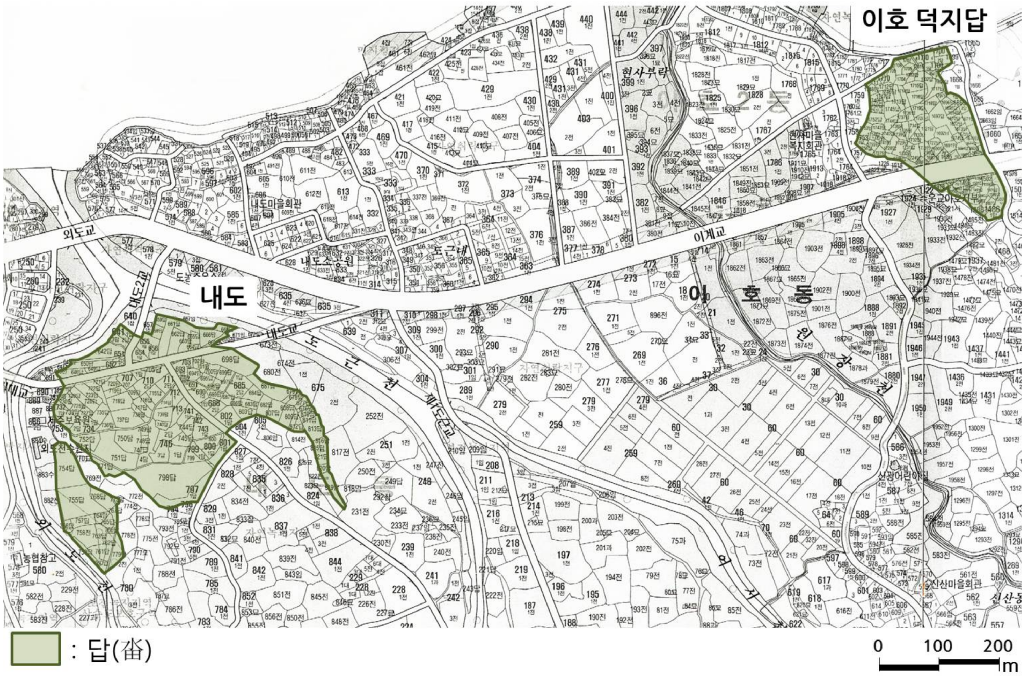


<그림 4> 구시물 일대 논

(출처: 지적도(2006) 일부 재구성, <그림 3> 참고.)

이호는 '덕지답'이라 불리던 논이 있었는데, 덕지수(德池水)란 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덕지답'이라고 하였다가 점차 그 지역의 지명으로 굳어져서 사용되었다(도리국민학교, 1987, 27). 내도의 경우에는 도근천과 무수천이 만나는 지점에 논이 위치했다. 이 하천들은 전 구간 상시하천은 아니지만 하류 쪽에서는 물이 풍부하게 나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그림 5〉. 광령에서는 1885년 경 '물꾸왓'지역에서 김부영이란 인물이 벼농사를 시작한 것이 시초인데, 천수답으로 벼농사를 짓다가 1950년 말에 어승생 수리사업이 재개되면서 외도 부근까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북제주군 광령1리, 199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5> 내도・이호 논

(출처: 지적도(2006) 일부를 재구성, <그림 3> 참고.)

명월의 경우에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명월조점(明月操點)'에 살포답(乭包畓)이란 이름으로 표시되어 당시에 중요한 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살포답은 명월답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옹포리・동명리 일대에 있는 옹포천 주변 논을 말한다〈그림 7〉, 〈그림 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6> 탐라순력도 중 명월조점(1702)
(살포답(麦包畓) - 동그라미 표시부분, <그림 3> 명월 참고)



<그림 7> 옹포천과 명월답의 현재모습
(촬영: 2014. 2. 24.)



<그림 8> 미나리꽝으로 이용되는 명월답
(촬영: 2014. 2. 24.)

대정현의 경우 논이 다양하고 넓게 분포해 있었다. 대표적으로 강정, 예래, 용수, 신도, 사계 등지에 논이 분포했는데, 용천이 풍부하고 지형적으로 평탄한 지역이라 논을 조성하기에 용이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의현의 대표적인 논으로는 하논이 있고, 성산에서는 오조리, 신흥리, 고성리 등지에서도 벼농사를 했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록(남제주군 성산읍, 2005)이 있다.

조선시대 제주도 벼 생산량은 당시 기록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결부법으로 생산량을 표기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생산량을 알아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54),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1793),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이원조, 1841), 대동지지(大東地志, 김정호, 1862~1866), 제주읍지(濟州邑誌, 1899) 등에 기록되어 있다.

1454년에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제주의 논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厥土風氣暖, 俗癡儉, 墾田三千九百七十七結。[水田三十一結。]土宜, 山稻、黍、稷、菽、喬麥、麰麥。

그 땅의 기후가 따뜻하며, 풍속이 미욱하고 검소하다. 간전(墾田)이 3천 9백 77결이요, [논이 31결이다.] 토의(土宜)가 밭벼(山稻) · 기장 · 피 · 콩 · 메밀 · 밀보리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정의현

厥土堉, 墾田三千二百八結。 土宜, 山稻、稷、粟、菽、小豆、蕎麥、麰麥。

땅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3천 2백 8결이요, 토의(土宜)가 밭벼(山稻) · 피 · 조 · 콩 · 팥 · 매밀 · 밀보리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

厥土堉, 墾田二千二百二十七結。[水田八十五結。]土宜, 山稻、粟、稷、小豆、蕎麥、麰麥。

땅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2천 2백 27결이요, [논이 85결이다.] 토의(土宜)가 밭벼(山稻) · 조 · 피 · 팥 · 메밀 · 밀보리이다.”

세종실록지리지가 발간된 지 약 340년 후인 1793년에 제주대정정의읍지가 발간되었는데, 여기에 기록된 논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주목 전총(田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旱田三千九百九十一結九十二負九束 水田三百五結八十二負九十束
한전이 3991결 92부 9속이 있고, 논은 305결 82부 90속이 있다.

대정현 전총(田摠)
水田一百九十九結五負二束 旱田二千二百二十八結八十九負三束
논이 199결 5부 2혹이 있고, 한전이 2228결 89부 3속이 있다.

정의현 전총(田摠)
水田十六結五十七負 旱田三千三百八十三結十三負三束
논이 16결 57부가 있고, 한전이 3383결 13부 3속이 있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가 발간된 이후 벼농사에 대한 기록은 1793년에 제주대정정의읍지가 발간될 때까지 약 340년의 간극이 발생한다. 읍지의 경우 그 사이인 1653년에 이원진이 저술한 제주도 읍지인 '탐라지'가 발간된 적이 있었지만 농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제주도의 논변화에 대해서는 파악해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 제주도의 논이 기록된 이후 약 340년이 지나서야 제주도내 농경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제주대정정의읍지가 나온 이후에는 제주 지역을 다룬 읍지가 꾸준히 나왔지만 그 안에 기록된 논 생산량에 관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경지규모에 대한 추이를 알아볼 수는 없었다. 다만 세종실록지리지와 제주대정정의읍지가 발간된 시기의 공백 기간 동안 제주도 논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주의 논이 제주 전 지역으로 퍼지면서 확대되는 시기가 세종실록지리지가 출간될 무렵부터 제주대정정의읍지가 나오는 시기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15~18세기 사이에 제주도 논 지역이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표 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 조선시대 지리지에 기록된 논 면적

발간연도	문헌명	논 면적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1454	세종실록지리지	31결	85결	-
1793	제주대정정의읍지	305결 82부 90속	199결 5부 2속	16결 57부
1841	탐라지초본	305결 82부 9속	199결 5부 2속	16결 57부
1862 - 1866	대동지지	305결 82부 90속	199결 5부 2속	16결 57부
1899	제주읍지	305결 83부 9속	199결 5부 2속	16결 57부

제주의 논은 관에 소유된 것과 민간에 소유된 것이 나뉘어져 있었고, 또한 제주목 소유의 논이라 할지라도 대정현이나 정의현에 위치한 경우가 있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제주읍지(1899)에 자세히 나와 있다.

"제주목 - 논(水田)

官私屯幷三百五結八十三負九束 內一百五結六十負在大靜 五十結二十負在旌義 實一百五十結三負九束 內二十九負一束民畓 除一百三十四結三十九負乾畓 十五結三十五負八束水畓.

관과 사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둔전인 것 까지 다 합쳐서 305결 83부 9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5결 60부는 대정에 있고 50결 20부는 정의에 있어서 실제 (제주에 있는 것은) 150결 3부 9속이고 그 중에 29부 1속은 민답이다. 134결 39부을 제하면 건답인데 15결 35부 8속이 수답이다.

대정 - 논(水田)

公私田幷一百九十九結五負二束 內州官田一百五結六十負.

공사전(公私田) 모두 199결 5부 2속이고 그 안에 주관전[3]이 105결 60부이다.

정의 - 논(水田)

十六結五十七負內 荒草陳雜頃及營牧畓官屯畓幷十一結十七負除 實五結四十六負.

정의현에 16결 57부 내에 황무지, 초지, 버려진 땅, 그 밖에 농사를 못 짓는

3) 주관전(州官田): 고을에서 운영하는 관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땅하고 영목답[4], 관둔답까지 다해 11결 17부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는 5결 26부정도이다."

위 글에 따르면, 제주도 논은 총 521결 46부 1속이 있고, 제주목 소유의 논이 305결 83부 9속이 있었다. 대정현에는 199결 5부 2속이 있었고, 정의현에는 16결 57부가 있었다. 그러나 논의 소유여부에 따라 다시 분류해 보면, 실제로 제주목에 위치한 논은 150결 3부 9속밖에 안됐고, 대정현과 정의현에 일부 논이 나뉘어 분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논의 위치를 다시 정리해보면 제주목에는 150결 3부 9속, 대정현에는 304결 65부 2속, 정의현에는 66결 77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2〉,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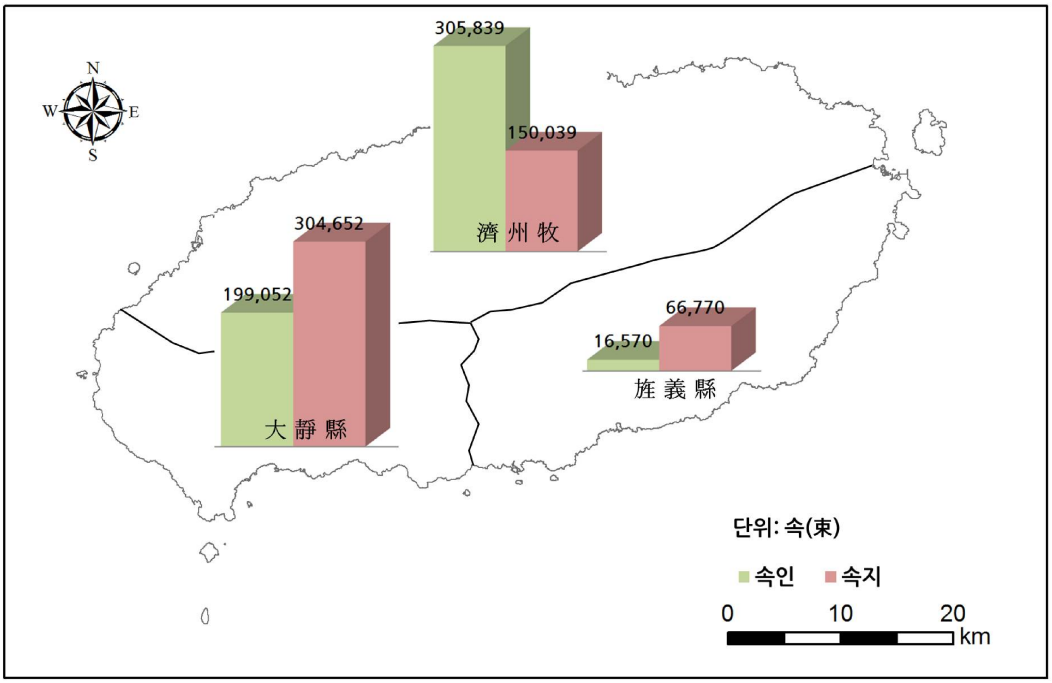
<표 2> 속인과 속지로 구분한 조선시대 제주도 논

	속인(屬人)	속지(屬地)
제주목	305결 83부 9속	150결 3부 9속
대정현	199결 5부 2속	304결 65부 2속 (105결 60부 - 제주목 소유)
정의현	16결 57부	66결 77부 (50결 20부 - 제주목 소유)
계	521결 46부 1속	

(출처: 제주읍지, 1899.)

4) 영목답(營牧畓): 목축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9> 속인과 속지로 비교한 조선시대 제주도 논

(출처: 제주읍지(1899)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수리시설

수리시설은 벼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벼는 생육기간 내내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물이 가두어진 논에서 자라는 까닭에 토양으로 전염되는 병도 안걸리고, 영양분도 물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연작을 해도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며(정치영, 2004b, 17), 제초노동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벼농사를 할 때 물을 잘 써야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논에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는 시설이 수리시설인데, 이는 공급과 배출을 함께 포함한 개념이다. 배출이 중요한 이유는 간혹 '늦'과 같은 것들이 벼를 병들게 할 때 물을 빼내 논을 말려주어야 하며, 수확을 할 때에도 원활한 수확을 위해서는 물을 빼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해가 발생할 때에도 물을 제때 빼주지 못하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제주에서 상시하천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자연발생적 습지와 못 인근에 벼농사를 했다. 조선시대부터 벼농사를 했던 지역들을 살펴보면 하논의 경우에는 ᄆᆞᆯ망소라는 못에서 용천이 풍부하게 용출되었고, 예래동에서는 논짓물이라는 용천이 있었으며, 용수리에는 용당못이 있었고, 항파두리 인근 구시물 역시 풍부한 용천이었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옹포리·동명리에 위치한 명월답의 경우에는 풍부한 수량의 옹포천이 있어〈그림 7〉 하천관개를 통해 하천의 물을 끌어다 썼다. 정광중(2011, 100)의 연구에서는 옹포천 외에도 조물, 개명물, 문두물, 마굿물(막은물) 등의 다양한 용천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벼농사가 가능했던 지역에서만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수로를 통해 먼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식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사이에 시작되었고, 저수지는 해방이후에나 축조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자연발생적인 습지나 못에서 용출되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까닭에, 물이 나는 곳은 늘 땅이 질고, 그곳에서 하류로 내려간 곳에 위치한 논은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금방 말라 버렸다. 물이 많아 늘 젖어 있는 논을 제주에서는 '흐렝이'라고 하며, 금방 말라 버리는 논을 '강답'이라 했다. 논이 금방 말라버리는 까닭은 배수가 아주 양호한 기반암적 특성에 기인했다. 물이 귀한데 물 손실도 많아 물관리가 매우 중요했다. 이를 맡아줄 담당자를 따로 두었는데, 이를 수감(水監)이라 칭했다. 용출되는 물은 수로를 파서 논으로 끌어들였는데 용천 부근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진흙을 다져 수로를 만들면 물 손실을 줄이면서 논으로 물을 보낼 수 있다. 용출되는 물의 양이 적으면 논머리에 용천을 포함시키지만, 용출되는 물이 많은 경우에는 논을 따로 만들어 투입되는 물의 양을 조절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농법과 토지소유관계

벼농사에서 농법은 쌀의 품종에서부터 파종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 제초하는 방법, 비료를 주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농기구들에 대한 것과 수리시설에 대한 농사 전반에 걸친 방법들을 말한다. 쌀의 품종은 크게 자포니카(japonica)와 인디카(indica)로 나뉜다. 세계적으로 인디카가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자포니카는 10% 정도로 소수에 속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소비되는 쌀은 자포니카이다. 인디카와 비교한 자포니카의 특징은 단립종이며 찰지고 윤기가 더 돈다. 조선시대부터 재배했던 쌀의 품종은 주로 자포니카였는데 인디카도 소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인디카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자포니카의 식감과 향미를 선호하여 인디카가 자연스럽게 배재된 것으로 보인다. 쌀의 품종은 자포니카와 인디카 외에도 재배환경에 따라 논벼(水稻)와 밭벼(陸稻)로 구분하며 쌀의 용도에 따라 멥쌀(秔稻)과 찹쌀(粘稻, 糯稻)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생육기간에 따라 조생종·중생종·만생종으로 나눌 수 있다(정치영, 2004b). 볏짚이 긴 덕에 볏짚을 활용한 도구를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며, 비나 바람 따위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수해보다는 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먼저 걱정하여 논에 물을 채워 넣었다.

조선시대 벼농사는 계절을 앞서는 법 없이 순리대로 농사를 지었고 그 순서나 방식은 농법서를 참고했다. 고상안이 1619년에 저술한 『농가월령』은 저자의 고향인 경상도 상주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인데, 이를 제주도의 벼농사 농사력과 비교하였다. 제주도 벼농사 농사력은 고광민(2004)의 연구와 현지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표 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 벼농사의 농사력 비교

월(음력)	절기	제주도	농가월령(1619년) - 경상도 상주
1월	입춘	논갈이(직파 · 휴경지, 1차)	농기구 준비
2월	경칩	논갈이(직파 · 휴경지, 2차)	봄갈이(춘경)
3월	청명	논갈이(직파 · 이앙) 파종(직파)	퇴비 넣고 못자리 만들어 올벼파종 퇴비 넣고 올벼 직파(무삶이)
4월	입하	녹비 넣고 모판제작(이앙)	녹비 넣고 중벼 직파(무삶이) 못자리에 중벼 파종 봉천지(奉天地)에는 건답직파(건삶이)
5월	망종 하지	물대기 경운(썰레질 · 밀레질) 모내기(이앙)	중벼 모내기 늦벼 모내기 봉천지에 늦벼 직파(무삶이)
6월		논매기	
7월	처서	논매기	올벼 수확, 벼 말리기 깨 베고 깨 껍질은 이른 모내기 기비용으로 보관
8월	백로 추분		이른 모내기 기비용으로, 다북쑥 베어 저장 중벼 수확
9월	상강	수확	늦벼 수확
10월	소설		도리채로 볏짚 두드려 남은 곡식 회수 논 갈아엎기(추경)

출처: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제주도의 경우 고광민(2004)의 연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정치영, 2004b, 조선시대 벼농사 농법, 자연보존, 12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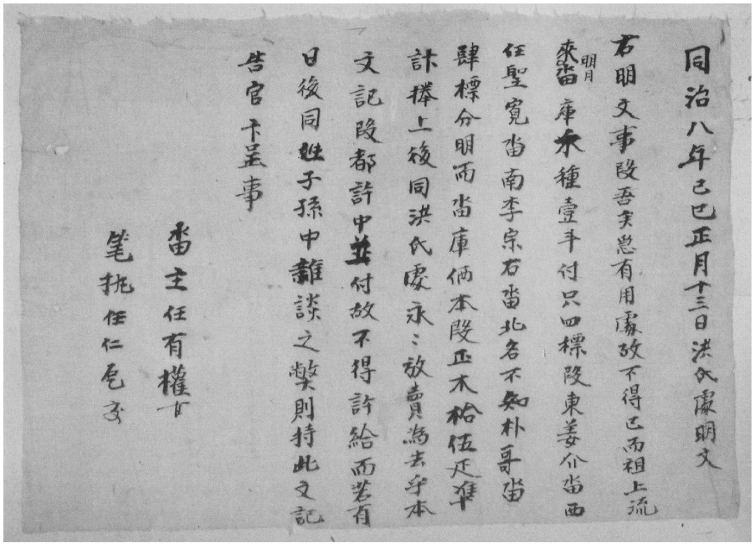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조선시대 제주도 논에 대한 토지소유관계는 현존하는 조선후기 제주도 토지매매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제주도 토지매매문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답소재지의 표시를 소재 마을이름이나 들판의 이름으로 표시했다는 점이다. 제주도 경지의 양전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양전이 실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척박한 제주도의 환경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비교적 비옥한 밭도 2~3년 동안 연작을 하면 한번은 휴경을 해야 하기에 매년 일정한 양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농민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또한 토질이 척박하고 염해나 풍수해의 피해를 자주 받아 흉년이 잦기 때문에 양전을 하지 못했다. 소재 마을의 이름이나 들판의 이름으로 토지를 표기하였기 때문에 토지매매문서에서는 토지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동서남북으로 인접한 땅을 표기해 놓았다. 네 방위에 인접한 땅의 표시를 할 때에는 소로, 제답(祭畓) 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형·토지를 표시하거나 소유주의 이름을 기록한 땅을 표시해 놓는다(김영란, 2010). 제주도의 논에는 민간에서 소유한 토지도 많이 있었는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혹은 매입을 통해 얻은 토지 등 취득 경위가 다양했는데 이를 토지매매문서에 기록했다. 토지를 매매하게 된 이유를 적은 것도 토지매매문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 토지를 매매하는 까닭으로 언급된 것들은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 토지를 대신해서 내주는 경우, 흉년이 들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경우, 혹은 개인적으로 급히 유용할 돈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그림 10〉은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명월답 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서는 임유권이 홍 씨에게 명월에 있는 논 한마지기를 급히 쓸 일이 있어서 정목 열다섯 필에 준하는 값을 받고 판매한 문서이다. 농사를 짓는 도중에는 토지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하지 않는 음력 정월에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다. 토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임을 밝혀두었고 토지를 판매하는 이유는 급히 쓸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매매하는 토지의 동서남북 네 곳의 위치도 함께 표시하여 그 경계를 명확히 했다. 논의 규모는 화종 1두(말)의 명월답을 준다고 적혀있었는데, 볍씨 한말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니 이는 곧 논 한마지기를 뜻한다. 논 한마지기의 값은 정목 열다섯 필에 준했다. 정목은 품질이 좋은 광목을 말하는데, 정목 열다섯 필에 준하는 값을 받는다고 했으니 꼭 정목으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 토지매매문서는 끝에 토지를 판 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자손이 구매한 이에게 토지소유를 가지고 잡담을 하여 폐를 끼치거든 이 문서를 이용하라고 명시해 두었다.



<그림 10> 1869년 명월답 매매문서
(출처: 고문서집성, 2002, 제주대학교 박물관, 146.)

同治八年己巳正月十三日洪氏處明文

右明文事段吾矣急有用處故不得已而祖上流來明月畓庫禾種壹斗付只四標段東姜介畓西任聖寬畓南李宗石畓北名不知朴哥畓肆標分明而畓庫價本段正木拾佰疋準計捧上後同洪氏處永永放賈爲去乎本文記段都許中付故不得許給而若有日後同姓子孫中雜談之弊則持此文記告官卞呈事

畓主 任有權(手決)

筆執 任仁乭(手決)

1869년(동치 8년) 1월 30일 홍 씨에게 보내는 명문.

이 명문을 한 이유는 내가 급히 유용할 곳이 필요한 까닭에 부득이 하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명월답 한 두 부치기 사표는 동쪽에 강개의 논과 서쪽에 임성관의 논과 남쪽에 이종석의 논과 북쪽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박 씨의 논 이렇게 네 개의 표시가 분명하니 가격은 정목 열다섯 필에 준하는 것의 값을 받은 후에 홍 씨에게 팔아버리므로 이 문기는 모두 허락한 것으로 상속이 불가하여 만약 이날 이후에 같은 성씨의 자손 중에 잡담을 하여 폐를 끼치게 될 때 막을 수 있도록 이 문서를 관에 고하고 이로 변정할 일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답주 임유권(수결)

필집 임인돌(수결)

다음은 고창석(1993)의 연구에 인용된 조선후기 토지매매의 내용이다. 문서의 내용은 정목 세 필을 빌려 사용한 후에 그 돈을 갚을 수 없어서 논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는 내용이다.

乾隆貳年丁巳正月初參日高允重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同人處正木參疋貸用之後價木段出處無路故勢不得已仐稀川員祖上傳來耕食畓陸片合租種柒升付只…又同員皮牟壹斗田付只…兩庫田畓…永報給及本文記段他田幷付乙仍于不得許給爲去乎…卞正事.

田畓主 金重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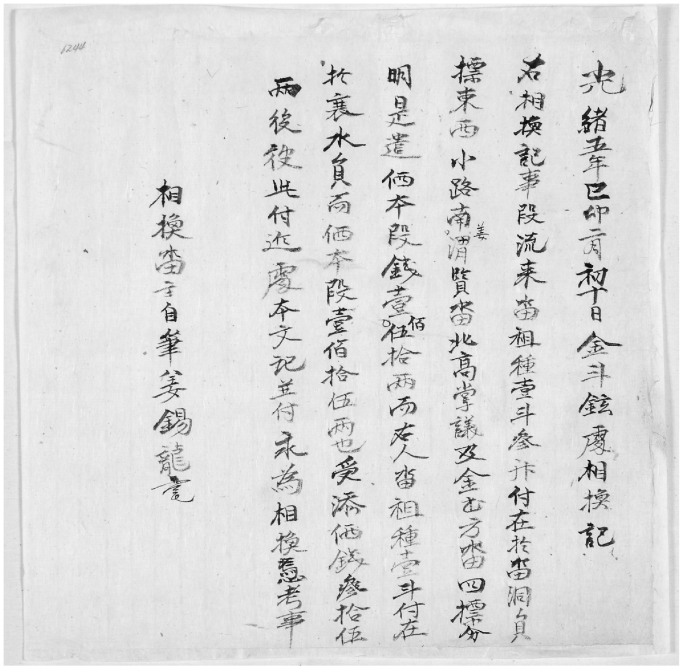
건륭 2년, 정사 1737년(영조 13년) 정월 3일 고윤중에게 보내는 명문.
이 명문을 하게 된 것은, 그 사람에게 정목(옷감) 세 필을 빌려 사용한 후에, 그 값을 구할 길이 없는 까닭에 부득이 하게, 마희천 부근에 있는 조상대대로 경작하여 먹고 살던 논 여섯 조각(파니)의 일곱 되 부치기를 주고 … 또 같은 곳에 있는 겉보리 1두의 밭을 주고 … 양쪽 전답 모두를 … 영원히 (빚을) 갚아 주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 다른 밭들을 함께 주는 것으로 두 번 거듭 하나, 부득이 해달라는 대로 허가하여 베풀어 주는 것은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 법으로 정한다.

전답주 김중보

〈그림 11〉은 1879년에 작성된 상환기이다. 돈과 토지를 맞바꾼다는 개념으로 명문이 아닌 상환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토지매매증서와는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토지 네 곳의 표시를 명시하여 토지구획을 확실히 정한 점이나 엽전을 받고 논을 건네준다는 내용에서는 다른 토지매매증서와 대동소이하다. 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판매하는데 이유는 특별히 적어 놓지 않았다. 〈그림 12〉는 1869년에 방수답 4마지기를 거래한 내용의 토지매매증서이다. 모친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논을 가뭄을 만나 당장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판매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 4마지기를 판매하는데 가격은 정목 세필 이십척에 준하는 가격을 받는다고 명시해놓았다.



<그림 11> 광서오년 상환기
(출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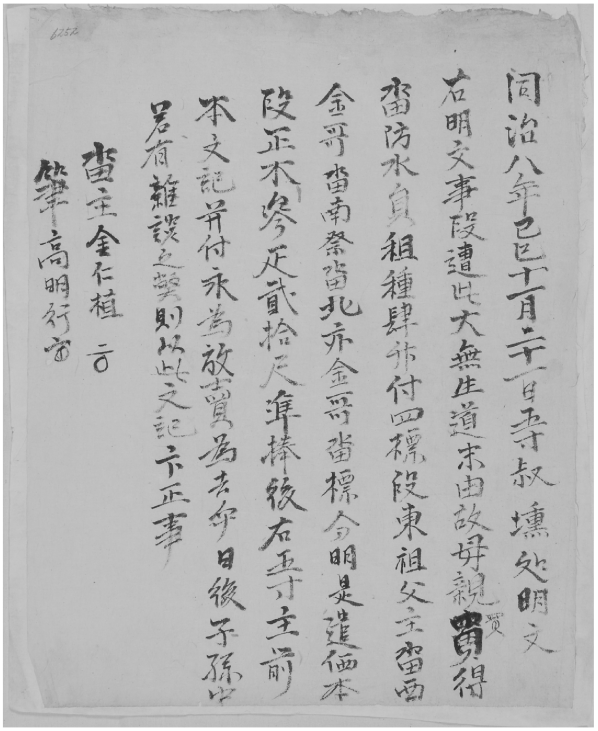
光緖五年己卯二月初十日金斗鉉處相換記
右相換記事段流來畓租種壹斗參升付在於畓洞員標東西小路南(姜)渭賢畓北高掌議及金尤方畓四標分明是遣價本段錢壹(佰)陌拾兩而右人畓租種壹斗付在於襄水員而價本段壹佰拾陌兩也. 受添價錢參拾陌兩後彼此付近處本文記幷付永爲相換憑考事
相換畓主自筆姜錫龍

1879년 기묘 2월 10일 김두현에게 보내는 상환기.
이 상환기를 쓰게 된 일은 대대로 물려받은 볍씨 한 말 석 두 부치기가 답동지경에 있는데 표시를 하면 동서로는 작은 길이 있고 남쪽에는 강위현의 논, 북쪽에는 고장의와 김우방의 논이 있어 네 개의 표식이 분명하고 가격은 엽전 150냥이다. 같은 사람의 논 벼 한부치기가 양수지경에 있는데 가격은 115냥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값을 35냥 더 받은 후에 피차에게 이 문기를 함께 보내니 영원토록 상환함을 빙고할 일이다.

상환답주 자필 강석룡



<그림 12> 1869년 방수답 토지매매증서
(출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同治八年己巳十一月二十一日五寸叔壎如明文

右明文事段遭此大無生道末由故好親買得畓防水員租種肆升付四標段東祖父主畓西金哥畓南祭畓北亦金哥畓標分明是遣價本段正木參疋貳拾疋準捧後右五寸主前本文記幷付永爲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差有雜談之弊則以此文記卞正事

畓主 金仁植

筆 高明行

1869년(동치 8년) 11월 21일 오촌숙 훈에게 보내는 명문
이 명문을 하게 된 일은 내가 이 일을 만나서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이를 말미암아 모친이 구입해 얻은 방수(防水)에 있는 볍씨 넉 되 부치기 논 사표는 동쪽에는 조부가 주인인 논, 서쪽에는 김 씨의 논, 남쪽에는 제답(祭畓)[5], 북쪽에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 김 씨의 논 이렇게 네 표가 분명하고 가격은 정목 세필 이십 척으로 준하는 것을 받은 후에 오촌의 앞으로 이 문서와 함께 영원히 판매됐으므로, 후에 자손 중에 잡담을 하여 폐단이 있을 때에 이 문서로 변정할 일이다.

답주 김인식

필 고명행

위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제주에서 논은 거래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토지규모는 파종할 수 있는 볍씨의 양을 바탕으로 계산했으며, 한 마지기에 정목 세 필에서 팔십 척까지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 입수 경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거나 구입을 통해 얻었고, 논을 판매하는 이유로는 개인 사정부터 가뭄 혹은 부채로 인해 어쩔 수없이 팔아야하는 경우 등 다양했는데, 대부분의 토지매매문서에서 이를 적어놓았다는 점이 특이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논 문기들은 향후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수확물을 조상의 제사에 쓰려고 마련한 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일제강점기

1) 논의 면적과 생산량

제주도는 조선말에 목사제도를 폐지하여 제주, 대정, 정의 3군으로 하여 전라남도 관찰사 아래에 두었다가 1910년 대정, 정의 2군을 폐지하여 제주군으로 합병, 전라남도청의 영할에 속하게 하였다. 1929년 당시 제주도의 가호수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751호이고 인구는 211,011명이었다(조선총독부, 1929).

<표 4> 제주도 인구와 쌀 생산 면적・생산량(일제강점기)

(단위: 명, ha, t)

연도	인구		벼(水稻)	
	가호	인구	면적	생산량
1929	45,751	211,011	886.6 (874정보)	1,008 (약 7,000석)
1936	48,100	196,774	884.6 (892정보)	1,282.3 (8,905석)
1938	49,680	203,651	780 (786.6정보)	1,502.4 (10,434석)

(출처: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2, 제주도; 제주도청, 1937, 제주도세요람; 제주도청, 1939, 제주도세요람.)

〈표 4〉를 보면 논의 면적은 1929년 886.6ha에서 1938년 780ha로 줄어들었는데 생산량은 1,008t[6]에서 1,502.4t으로 늘어났다. 논의 면적이 10년 사이에 100ha나 줄어든 이유는 제주도가 일제강점기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 침탈당하면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군사용으로 변경되거나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징용・징병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는 산미증식계획[7]을 추진하면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녹비(綠肥)작물 등을 들여온 것이 효과가 있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운영된 논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논이 대부분이나 중문동 천제연 일대는 수리시설의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개척되었다〈그림 32〉. 기

6) 단위는 국제도량형 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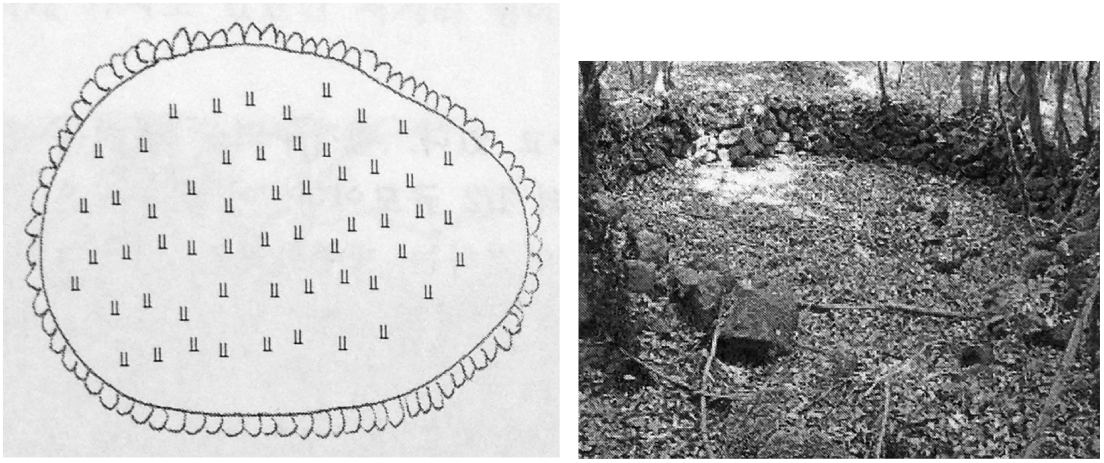
7)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은 일제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한 정책이다. 산미증산계획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화전민이 증가하고 소작인이 몰락하게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쌀 가격이 폭락하여 일본 농촌경제가 악화되는 바람에 1934년에 중단되었다(http://ko.wikipedia.org/wiki/산미증식계획, 위키피디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존의 논은 수리조합의 확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생활상태조사 2, 제주도」에는 제주의 농업에 대해 기술한 부분에서 제주도의 논이 적은 이유로 제주도의 지질은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절리가 많아 강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암반 밑으로 통하여 해안이나 해안근처로 흘러가기 때문이며 해안가의 용천에서나 논을 만들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아주 특수한 사례로 제주도내 곶자왈 중에 선흘곶에서 논이 조성된 흔적이 있다. 이곳의 논은 곶자왈 내에 있는 습지에 조성된 것인데, 우마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습지에 내려와 흙을 밟아 압밀이 되면서 이곳이 물이 빠지지 않는 논이 될 수 있었다. 이 습지의 이름은 '강못'이라 일컬었는데 선흘곶 논의 규모는 10평에서 200평까지 다양한 크기로 있었으며 직파와 이앙법을 병행했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 벼농사를 시작한 시기는 1940~1950년 사이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쌀이 귀한 제주도 내에서 가장 쌀을 구하기 힘든 중산간 마을이었기에 소량의 쌀이라도 생산하기 위해 논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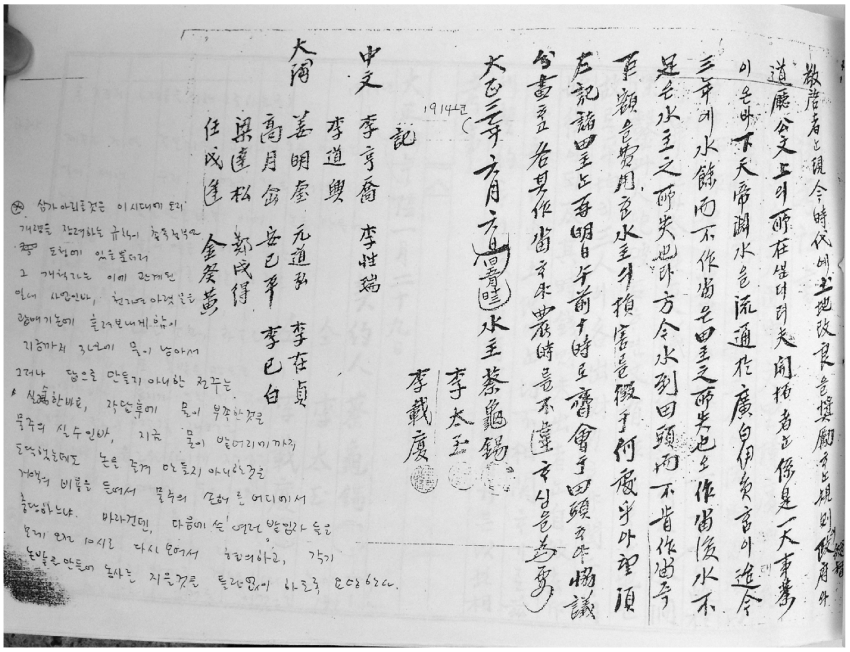
<그림 13> 선흘곶 및 목장 내 강못 모식도(좌)와 강못 벼농사 추정지(우)
(출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 6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수리시설

수리시설에 의한 관개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위해 논을 더 만들고자 했고 일본이 들여온 벼 개량종이 재래종에 비해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수리시설의 수축(樹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수리시설을 수리하고 재구축 하는 일은 소작인의 부역으로 충당했고, 그 비용도 소작인이 부담하였다. 공사비를 지주가 부담한다고 해도 결국 소작인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기 때문이다(정연태, 1988).

일제강점기 때 제주에서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벼농사를 시작한 중문동 일대 답주들 간의 문서가 남아있다<그림 14>.



<그림 14> 중문동 일대 논 개간에 관한 문서

(출처: 이성무 개인 소장.)

<원문>

敬啓者ᄂᆞᆫ 現今時代예 土地改良을 奬勵ᄒᆞᄂᆞᆫ 규칙이 總督政府와 道廳公文上의 所在뿐더려 夫開拓者ᄂᆞᆫ 係是一大事業이온바 下天帝淵水을 流通於廣白伊員ᄒᆞᆷ이 迨今三年에 水餘而不作畓은 田主之而失也오 作畓後水不足은 水主之所失也라 方今水到田頭而不肯作畓즉 巨額을 費用ᄒᆞᆫ 水主의 損害를 徵于何處乎 아望俱右證諸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ᄂᆞᆫ 再明日 午前十時로 齊會于田頭ᄒᆞ야 協議約書ᄒᆞ고 各其作畓ᄒᆞ야 農時를 不違ᄒᆞ심을 爲要.

大正三年 六月 六日

水主 蔡龜錫, 李太玉, 李載廈

記

中文 3명, 大浦 10명

〈해석〉

삼가 아뢰올 것은 이 시대에 토지개량을 장려하는 규칙이 총독정부와 도청에 있을뿐더러 그 개척자는 이에 관개된 일대 사업인바, 천제연 아랫물을 광배기논에 흘려보내게 함이 지금까지 3년에 물이 남았음에도 답으로 만들지 아니한 것은 전주가 실수한 바요, 작답 후에 물이 부족한 것은 물주의 실수인바, 지금 물이 밭머리까지 도착했는데도 논을 즐겨 만들지 아니한 즉 거액의 비용을 들인 물주의 손해를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바라건대, 다음에 쓴 여러 밭 임자들을 모레 오전 10시로 다시 모여서 협의하고, 각기 논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것을 틀림없이 하도록 요구한다.

1914년 6월 6일

수주 채구석, 이태옥, 이재하

기

중문 3명, 대포 10명

그 내용은 조선총독부와 제주도청에서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논풀이 되는 상황이 지체되자 이에 그 이유를 밝히고 논으로 개간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은 밭주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곳의 관개수로를 통해 논으로 전환이 가능한 지역은 논으로 바꾸고, 논으로 개간하였지만 물이 부족하여 수확을 하지 못한 곳은 수감의 실수이니 제대로 하겠다고 밝히며, 이 관개수로를 만드는데 큰돈을 투자한 채구석, 이재하, 이태옥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소작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다. 인근 마을인 강정의 소작인이 수확한 쌀을 답주와 나누는 비율이 5:5인데, 강정은 소작인과 답주가 나누는 몫이 3:7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소작인들은 답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게 다음해 소작을 부탁하면서 갈치를 구워 배불리 대접하기도 했다[8]. 강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작료를 후하게 쳐주는 편이기는 했지만, 중문의 소작인의 몫이 이렇게 적은 까닭은 수리시설 건설에 투입된 공사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제주 벼농사의 특별한 사례로 제주 중산간 지역의 곶자왈 지역이 있다. 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선흘곶에서는 논을 조성하기 위해 습지를 활용했는데, 보통 물 빠짐이 매우 좋은 곶자왈에서는 습지가 조성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여러 집에서 곶자왈이나 목장 내에 있는 습지를 찾아 벼농사를 했다. 수리시설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 간 것으로 보인다. 수확한 벼는 교통수단이 없어 등짐으로 지고 나왔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 183.).

8)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윤광제(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농법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녹비작물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다. 녹비(綠肥)작물은 비료를 얻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총칭하는 말인데,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가공하는 일 없이 푸른 잎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녹비(綠肥)작물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대표적인 녹비작물에는 자운영, 헤어리베치, 청예콩, 완두콩, 클로버류, 호밀, 귀리, 밀 수수, 유채, 메밀, 해바라기 등이 있다(박찬호 외, 1982). 논둑에 콩을 함께 심는 이유도 노는 땅을 아끼려고 하는 이유와 지력을 보충하기 위한 이유도 함께 있다.

제주도의 벼농사에서는 녹비작물로 콩과녹비작물인 자운영(chines milk vetch)과 헤어리베치(hairy vetch)를 활용했다. 자운영은 중국 원산인데 녹비작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귀화종(문화콘텐츠닷컴, 2010)이나 남부지방에서는 자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헤어리베치 역시 원산지가 서아시아에서 동지중해 지방인 외래종이다. 이 작물들은 조선총독부에서 녹비작물로 권장하며 들여오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운영이나 헤어리베치와 같은 녹비작물이 비료로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렴하면서 작물 생장에 필요한 3요소를 모두 갖추었고, 작물을 키우는 시기를 피해 경지가 노는 시기에 맞추어 키울 수 있으며, 키우는데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박찬호 외, 1982,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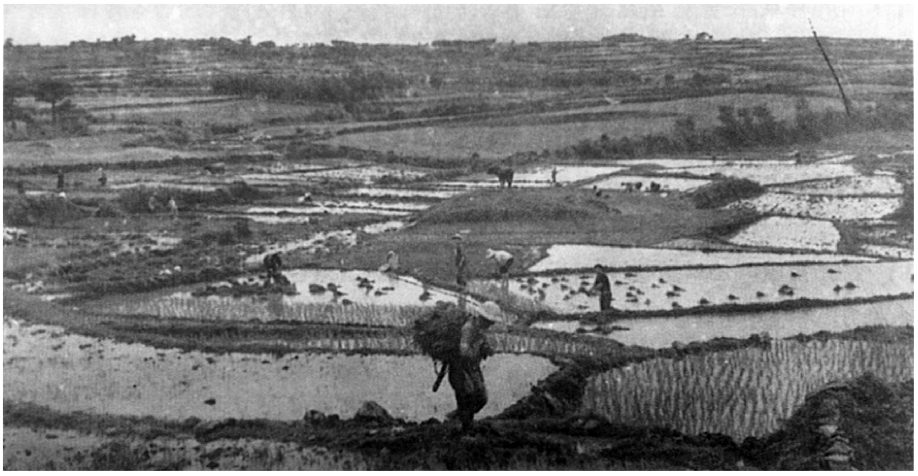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도 판매 비료는 존재했었지만 주로 퇴비나 녹비작물을 활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소작인의 경우에는 비료를 사게 되면 비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소작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확을 지주에게 내주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감당하면서 비료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해방이후

1) 논의 면적과 생산량

해방이후에도 논풀이가 있었는데, 저수지를 축조한 그 일대(수산, 용수 등)와 염전이었던 간척지를 논으로 논풀이한 종달리가 그것이다. 종달리는 20세기 후반에 벼농사를 시작했던 지역이다. 종달리 논은 간척지에 개간된 농지인데 일제강점기에 종달리 서쪽의 해만(海灣)지역에 간척을 시도한 기록이 있고 또 남쪽에 염전을 만들면서 간척한 땅에 새로 객토를 하여 논으로 만들었다. 〈그림 15〉는 제주도지에 실린 1968년 농촌풍경인데 그림을 통해 당시 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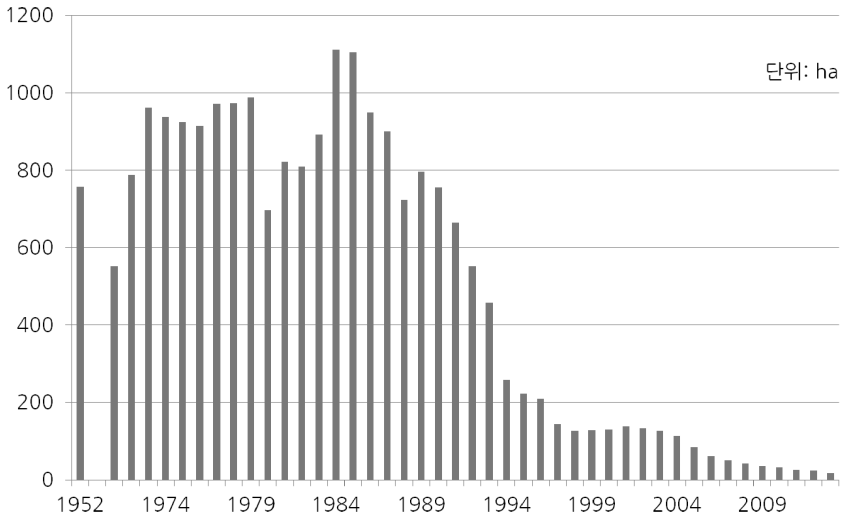
<그림 15> 1968년 농촌풍경

(출처: 제주도, 2006, 제주도지.)

부록에 첨부한 〈표 6〉은 해방이후 제주도의 쌀 생산 경지면적과 생산량을 정리한 표이다. 전체 미곡생산량에서 논벼와 밭벼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제주도에서 밭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작성하면 논의 면적 변화는 〈그림 16〉과 같이 나타난다. 해방이후 논의 평균 면적은 약 502㏊이고 논에서 생산한 쌀의 평균 생산량은 약 1,606 M/T이다. 밭에서 생산한 밭벼의 평균 재배면적은 850㏊이며 평균 생산량은 1,177 M/T이다. 논벼와 밭벼의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논벼의 평균 생산면적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밭벼에 비해 작은데 비해 생산량은 논벼가 밭벼보다 높다. 밭벼가 논벼에 비해 조방적이고 생산효율에서는 논이 밭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 해방이후 논의 면적변화

(출처: 남인희(1985); 제주통계연보(1976-2012)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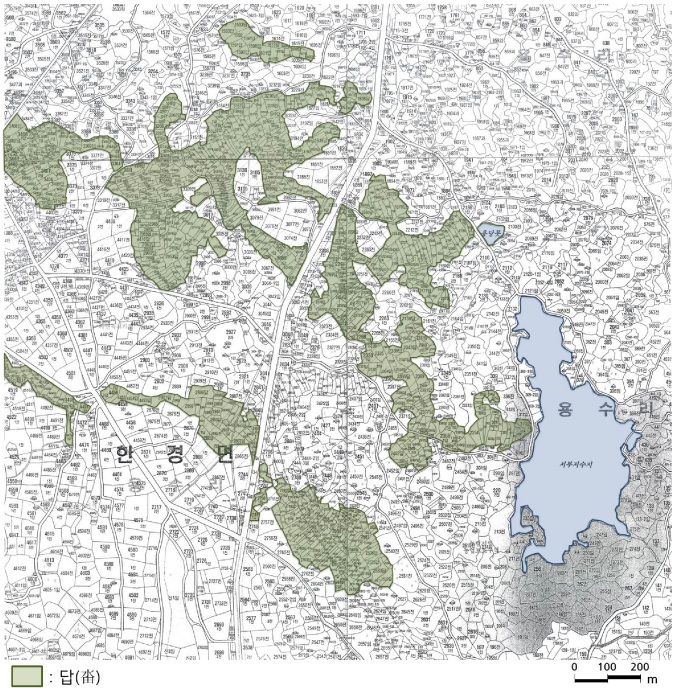
논의 면적변화를 보면 1984년을 기점으로 논 면적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993년부터는 급격하게 논의 면적이 줄어드는데 이시기는 중문 천제연 일대의 논이 중문관광단지가 되면서 폐답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논이 폐답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하논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답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수리시설

벼농사에서 가장 흔하게 조성되는 수리시설은 저수지이다. 대부분 논의 상류 지역에 둑을 쌓아 축조하며, 풍수기(豊水期)때 물을 모아 갈수기(渴水期)때 저장한 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갈수기가 겨울과 봄인데, 논의 경우에는 특히 갈수기 끝 무렵인 봄에 모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수지는 축조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고, 물을 미리 모아두어 수온을 높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적합하다.

정부수립이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제주에서도 저수지를 축조했다. 1956년에 저수량 5.1만t의 광령저수지 축조를 시작으로 1957년에 저수량 25.3만t의 용수(서부)저수지를 만들고, 1960년에 저수량 68.1만t의 귀엄(수산)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3년 저수량 5000t 규모의 두모저수지를 축조했다. 광령, 용수, 수산 모두 벼농사가 있었던 지역으로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김태호, 2006)<그림 17>.



<그림 17> 용수(서부)저수지와 논

(출처: 지적도(2006) 일부를 재구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농법과 생활양식

고광민(2004)의 연구에서 제주의 논을 크게 '강답'과 '흐렝이'로 나눌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강답'은 물이 고였다가 쉽게 말라버리는 논을 말하고, '흐렝이'는 물이 늘 고여 있는 논을 말한다. '강답'은 '마른논'이라고 하며, '흐렝이'는 '흐렁논'이라고도 한다. 흐렝이는 물이 풍부하여 벼농사를 거르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강답은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리농사로 대신하기도 한다. 벼의 재배 기간은 대략 6개월인데 청명 이후인 4월 10일경에 직파하여 10월 초순 전후로 수확한다. 고광민(2004)은 밭갈이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제 답사와 인터뷰를 통해 연구하여 제주도 벼농사 농법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를 하였으나 직파법에만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앙법에 대한 농법의 일련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벼농사는 밭갈이로부터 시작하여 수확과 탈곡에 이르는 과정까지 대략 8단계에 거쳐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 구분한 단계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규칙은 아니다. 벼농사의 대략적인 단계를 소개하면, 가장 먼저 논갈이를 통해 경작할 땅을 고르고 물을 대 논을 만든 다음 거름을 주어 땅을 기름지게 하고 경종을 하여 벼를 심는다. 그 후에 물관리와 논매기, 구제 등을 통해 벼를 키우고 수확과 탈곡의 과정을 거쳐 쌀을 생산한다.

(1) 논갈이

논갈이는 4월과 6월에 한다. 그 사이 5월에 모판을 제작한다. 6월에 하는 경운에서는 썰레질과 밀레질을 함께 하여 모내기에 적합한 상태의 논을 만든다. 논을 갈 때엔 고랑 가득히 물을 흘려보내 논에 물을 공급한다[9].

(2) 물대기

물대기는 수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논에서부터 물을 대기 시작하여 도수로를 통해 멀리 있는 아랫논까지 물을 대면서 마른논을 논으로 만든다. 물을 대는 이유는 물이 논에 들어찬 이후에야 파종이 가능하여 벼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물대기가 중요하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에는 벼가 토양의 지력보다는 물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정치영, 2004b, 17) 물 공급이 중요하며,

9) 제보: 김갑득(75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한 공급받는 물의 수온 역시 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정치영, 2004a). 제주의 경우에는 수온이 벼가 자라기에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일단 물을 대기 시작하면 물이 풍부한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 아랫논까지 물이 가득 차는데[10], 광령마을의 경우에는 물머리논과 깍논의 파종시기가 20여 일정도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광민, 2004, 72). 수심은 5cm를 유지한다.

(3) 시비

벼농사는 물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덕에 모판을 만들 때를 제외하고는 많은 영양분을 필요치 않는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더 좋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시비는 필수적이다. 강정 마을의 경우 제보자가 농사를 짓던 시기인 1970년대 이전에는 비료가 귀해서 비료를 함부로 살 수 없었고 정부에서 마을별로 지급하는 것을 집집마다 나누어서 사용했다. 화학비료가 들어오기 전에는 녹비작물을 잘게 잘라서 비료로 썼는데, 특히 못자리를 만들 때에 주로 사용했다[11].

제주도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녹비작물로 주로 팽나무나 자운영을 잘라서 사용했는데, 팽나무나 자운영은 제주도에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못자리를 만들 때에는 잘라낸 팽나무가지를 흙에 깔아서 발로 밟아 흙에 묻은 다음에 볍씨를 심어 모판을 만들었다.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굳이 논에 자운영을 심어 키우진 않고 자운영이 논에서 자라면 좋고 없어도 개의치 않았다고 하였고[12], 중문에서는 자운영을 긁어다가 갈아서 썼다고 하는 것[13]으로 보아 벼농사를 하는 마을 모두가 녹비작물을 똑같이 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경종

벼를 심는 방법은 크게 볍씨를 논에 뿌리는 직파법과 볍씨를 모판에서 모로 키워낸 후에 그 모를 옮겨 심는 이앙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도 벼농사에서 이앙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약 50년 전부터다. 그

10) 제보: 김갑득(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1) 제보: 김갑득(75세) · 윤광제(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2) 제보: 김갑득(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3)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래서 해방 이후에는 직파법을 사용하다가 이앙법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벼농사가 확대되면서 수로시설이 확충되고, 해방이후에 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앙법의 경우에 볍씨를 모판에 발아시켜 모를 키워내고 그것을 다시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논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성장기의 모가 마르게 되고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앙법을 할 수 없고, 제주의 경우 강답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 흐렝이로 만들지 않은 이상 이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논의 위치에 따라 이앙 시기가 차이난다.

모내기의 초기에는 산파법으로 심었다. 산파는 눈대중으로 아무렇게나 모를 심는 것을 말하는데, 눈대중으로 모를 심으면 제초를 할 때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일일이 손으로 제초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다 후에 줄을 가지고 반듯하게 재면서 차곡차곡 모를 심게 되었는데, 모를 직선으로 심게 되면서 피 뽑는 기계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 뽑는 기계는 1970년대에 도입되었다[14]. 모내기는 장마철을 즈음하여 했고, 벼의 생육기간은 품종이나 기후조건에 따라 상이하여, 강정 마을의 경우에는 2개월, 여타 제주 논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되었다.

이앙기가 도입된 이후에는 규격화된 모판에 키운 모를 기계를 통해 쉽게 심을 수 있게 되었다. 좋은 농기계를 사용하면 1가구가 약 6만평까지 벼농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 기계로 이앙을 한 다음에는 '뜬모' 혹은 '모때우기'를 하여 기계가 심을 수 없는 공간에 모를 채워주고 기계로 심으면서 제대로 심어지지 않은 모를 직접 잡아주는 작업을 한다.

(5) 물관리

논에서는 물관리가 중요하다.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물을 끌어오는 문제는 수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특히 많은 갈등을 야기한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기에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물관리를 할 사람을 두어 그 사람의 말에 따르도록 정해왔다.

14) 제보: 김갑득(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외지역[15]의 벼농사지역에서 농사에 필요한 용수는 알아서 사용했다. 도외지역의 물관리는 정부에서 만든 관개시설의 축조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관개시설은 흔히 '수리조합'이라 불렸다.

수리시설이 생긴 이전의 논은 몽리(蒙利)의 여부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주에서 '흐렝이'라고 불리는 '수렁배미'와 천수답 그리고 방죽의 물을 공급받는 논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전옥답'으로 불리는 '수렁배미'의 논은 마을 가까운데 있는 물이 풍부한 좋은 논을 가리키는 말로 물이 샘솟는 곳이기 때문에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추수와 같이 물이 빠져야 할 때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 고생하기도 했다. 천수답은 말 그대로 하늘만 바라보는 논을 말한다. 파종 시기는 비가 오는 시기가 되고, 가물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또 비가 많이 와도 문제인 논이다. 천수답은 빗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로 인해 다른 논과 다툴 일이 없었다. 위의 두 논의 경우는 몽리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고 몽리하는 경우는 방죽논이 있다. 방죽논은 저수해 놓은 물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뭄이 들 때엔 한정된 수자원을 가지고 여러 논이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몽리하는 답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갈등의 당사자인 답주들이 모여서 상의하는 정도에서 해결했으나[16] 대지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수리시설이 생긴 이후로는 물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천수답도 안정적으로 몽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써도 됐는데, 물이 풍부하여 물꼬싸움은 없었다. 간혹 큰 가뭄이 들 때에는 같은 도랑을 공유하는 답주끼리 만나 서로 물 댈 날을 조율하는 일은 있어도 따로 물관리를 맡는 사람은 없었다[17].

제주의 경우에는 물관리를 맡는 사람을 다르게 정했다. 제주도는 대부분 지역의 배수가 좋아 논이라 할지라도 물머리논이 아닌 이상 물 공급을 꾸준히 해주

15) 도외지역의 사례로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일대의 벼농사 경험 구술을 바탕으로 기술했다(제보: 정도순(54세)).
16) 제보: 정도순(54세), 2014,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17) 제보: 정도순(54세), 2014,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야만 했다. 물공급이 소홀하게 되면 물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관리를 하는 사람의 일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도 무척 많았다. 이런 이유로 제주의 논에는 물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을 두었는데 이를 '수감(水監)'이라 했다. 수감은 논임자가 아니어도 맡을 수 있었는데, 수감의 역할을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답주들의 모임인 답회(畓會)에서 결정하여 임명했다. 수감의 임기는 정해진 것이 없었으나 대부분 다년간 맡아서 지냈다. 수감은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 교체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물관리를 하려면 물을 대는 시기와 양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수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감은 논마다 물을 공급할 날짜와 양을 정했고 답주들은 자기 논에 물을 대기위해서는 항상 수감의 허가를 받아야했다. 수감의 허락 없이 답주가 임의로 자기 논에 물을 대면 다른 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감의 보수는 논 300평당 1말을 받았는데, 논에서 15말이 생산되면 1말을 받는 정도였다[18]. 〈사례지역 2〉에서 소개할 성천답회의 경우에는 수감에게 150평의 쌀을 보수로 지급했다고 한다[19].

(6) 논매기

벼의 생육기간동안에 논에는 벼말고도 다른 잡초가 함께 자란다. 특히 피가 많이 자라는데, 흔히 '피뽑기'라고 하는 작업을 한다. 제주어로 '검질'이라고 표현하는 제초작업은 맨손으로 잡초를 뽑아 흙속에 다시 묻었는데, 이렇게 하면 잡초가 다시 자라지 못하고 그래도 썩어 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초작업은 벼의 생육기간인 6월 초에서 7월 말에 2~3회에 거쳐 시행했다[20].

1970년대 이후에는 피 뽑는 기계가 도입되어 기계를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앙기를 통해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벼의 간격이 규격화되어 있어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수월하다.

(7) 구제

벼에 붙은 병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작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18) 제보: 김갑득(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9)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0) 제보: 김갑득(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벼의 생육기간동안 영양분을 빼앗겨 말라죽는 것을 막고 더욱 튼실하게 키우기 위함이다. 제주의 벼농사지역에서는 병해충의 구제에 상어 기름이나 고래 기름을 사용했다(대포, 법환). 상어 기름은 상어를 솥에 달여 구할 수 있었고, 고래 기름은 간혹 바닷가로 죽은 고래가 떠밀려 오면 구할 수 있었다. 물에 기름을 방울로 떨어뜨리면서 몽둥이로 벼를 두드려 벌레를 기름위로 떨어트렸다. 물위에 떨어진 기름은 물위에 뜨면서 넓게 퍼지는데 그 위에 벌레가 떨어지면서 다시 벼 위로 못 올라오고 죽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벌레들을 기름물 위로 떨어뜨린 후에 물꼬를 터서 흘려 내려 보냈다. 후에 정미소가 마을에 생기면서 중유를 구할 수 있게 되어 구하기 힘든 상어기름이나 고래기름 대신 중유를 사용하게 되었다. 중유를 사용할 때에는 강정에서 논에 한 방울씩 뿌리면서 구제를 한 것과는 다르게 대포 마을에서는 정미기에서 흘러나온 중유를 모래와 섞어서 뿌렸다. 기름을 이용한 구제방식은 강정·중문·대포 등의 마을에서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다[21](대포마을회, 2001; 법환마을회, 2000).

농약은 1960년을 전후해서 도입되었다. 이 때 수입된 농약은 독성이 강하고 농도도 진하여 농약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농약 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농약이 강했던 만큼 논에 서식했던 벼메뚜기나 뱀 등이 전멸되기도 했다. 병해충 방제 요령은 손에서 뿌리던 방식에서 분무기가 보급되면서 많이 발전했다(법환마을회, 2000).

(8) 수확과 탈곡

벼는 음력 9월 중에 베는데 보름 전에는 논에 물을 빼주어야 논바닥이 마르면서 추수가 수월해진다. 물을 뺄 수 없는 지역에서는 젖은 채로 수확한다.

탈곡은 1930년대 초에 도입된 '클(벼훑는 도구)'을 가지고 했었다〈그림 18〉. 탈곡한 후에 남은 볏짚은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초가지붕을 만드는데도 사용되었고, 소여물로도 먹였고, 비올 때 사용하는 '너람지(도롱이)'를 만들기도 했다[22]. 중문의 경우에는 볏짚을 사용하기위해 키가 큰 벼를 심기도 했다[23].

---

21) 제보: 김갑득(75세)·윤광제(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2) 제보: 김갑득(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3)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8> 클을 이용하여 탈곡하는 모습
(1970년대 초,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출처: 고광민, 2004, 제주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77)

기계화가 된 이후에는 콤바인으로 추수에서 탈곡까지 한 번에 되었고, 이렇게 탈곡한 낟알을 정미소에서 쌀과 겨로 분리한다. 현재 벼농사를 하고 있는 하논의 경작인은 개인 소유의 농기계를 이용해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고 있다[24].

폐답되기 전 강정마을의 논 규모는 약 35만 평이었다. 당시 강정마을의 인구는 500~600호가 있었고, 그중 약 450호가 약 35만 평의 논에 벼농사를 지었다. 제주에서는 가장 넓은 논을 보유한 마을이었는데 이곳의 논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지주 몇 명이 논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없었다. 간혹 많이 가진 사람이 1,500평정도 가졌었는데 그 마저도 몇 사람이 안 되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호당 3~400평 정도의 논을 집집마다 고루 소유했다. 그러나 벼농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귤과 같은 환금작물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까닭에, 밭 세배 값을 받았던 논의 값이, 지금은 답지로 묶여있어 과수원으로 쓸 수도 없어 오히려 토지매매가 더 안 된다고 한다. 생산된 쌀은 중문의 경우 부잣집은 팔아서 이익을 냈고 가난한 집은 제사지낼 쌀을 제하면 팔게 없었

24) 제보: 이종근(62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25]. 강정에서도 부잣집의 경우는 쌀을 먹을 만큼 남겨두고 장에 팔았지만, 가난한 집은 쌀을 모두 내다팔아 돈을 벌었다고 한다[26].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돈이 되었고 벼농사만 짓다 보니 수입원이 쌀을 파는 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벼를 팔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판매는 시장을 통해 했는데, 제주에는 쌀이 귀해 쌀값이 비쌌다. 간혹 벼농사를 많이 하는 집에서는 쌀과 보리의 비율을 2:8 정도로 해서 밥을 지어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확한 쌀을 팔았다. 쌀 한 말을 팔면 보리 서너 말은 훨씬 넘게 받을 수 있었다[27].

25)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6) 제보: 김갑득(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7) 제보: 김갑득(75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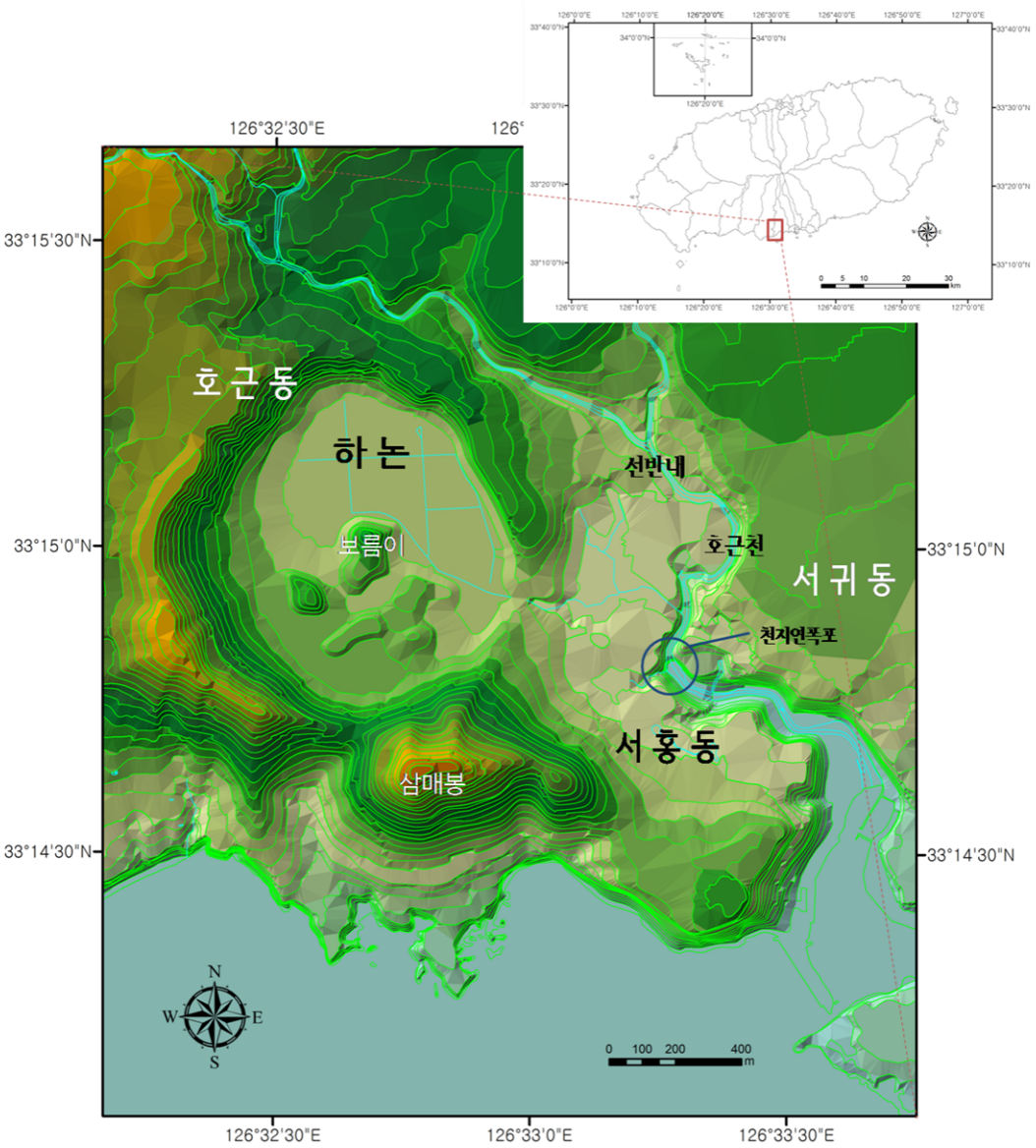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사례지역연구

1. 서귀포시 하논

1) 연구지역 개관

이 장에서 다루는 벼농사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홍동에 위치한 하논이다<그림 19>.



<그림 19> 하논 연구지역 개관

(출처: 수치지형도(1:5,000, 2004) 일부를 재구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논은 15세기 후반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여 500년이 지난 지금(2014년)도 계속 벼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다. 하논은 조선시대에 시작한 벼농사 지역이란 점과 현재에도 벼농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란 점에서 제주도 벼농사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례지역이라 판단했다. 이 장에서는 하논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배경과 하논에서 볼 수 있는 지리적 특징들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하논이 위치한 지형은 마르형 분화구 내부에 스코리아콘이 분화하여 형성된 이중화산이다. 삼매봉을 중심으로 한 외륜부가 마르형 분화구이고 그 내부에 위치한 보름이오름이 스코리아콘이다. 하논은 보름이오름 북쪽에 마르형 분화구에 위치해 있다.

〈그림 20〉은 하논의 실제 모습이다. 사진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마르형분화구의 외륜부에 해당하는 모습이고 가운데 평평한 지역이 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논이 있는 부분 뒤쪽으로 조그맣게 보름이 오름이 보이고 있고, 사진 왼쪽에 삼매양악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20> 하논의 실제모습

(촬영: 2014. 3. 21.)

2) 하논의 개척과 영농의 역사

본 장에 서술된 내용은 현재(2014년) 하논에서 논을 경작하고 있는 이종근 씨의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더불어 역사적 사실이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은 사료와 지도 등의 문헌자료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보완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논 개척

이 지역의 벼농사는 자연적인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벼농사가 확산되면서 15세기 후반이 되어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논의 기록은 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고문헌 중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제38권 전라도 정의현)에서 '하논'을 일컬어 '삼매양악(三每陽岳)현 서쪽 30리에 있다. 악(岳)의 가운데가 트이고 넓어서 논(水田) 수십 경(頃)이 있다. 이름이 대지(大池)이다.'라고 표시되어 있다<그림 21>. 고지도 중에서는 1702년에 제작된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촉」에 '하논'이 '大畓'등과 같은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 이전에 '하논'이 논으로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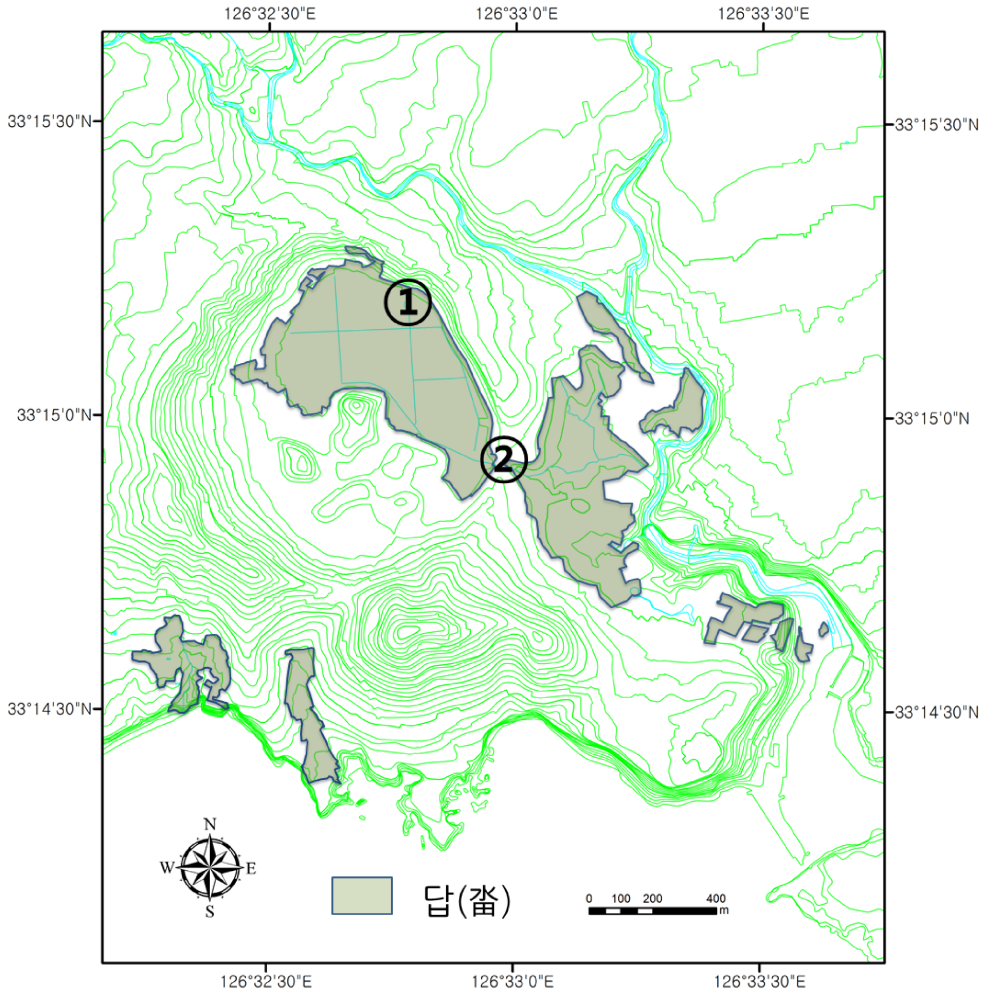
<그림 21> 신증동국여지승람(제 38권 전라도 정의현) 중 삼매양악

1653년 간행된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구체적인 하논 조성과정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세메양오롬(지금의 삼매봉)에 ᄆᆞᆯ망소(藻淵)가 있다. ᄆᆞᆯ망소란 이름은 개구리밥이 많아서 지어진 이름으로 게도 있다. 나중에 동쪽 가장자리를 뚫어 물을 빼서 논으로 만들었다(이원진, 1653)."라고 하였다.

ᄆᆞᆯ망소<그림 23>는 하논의 북동쪽에 위치한 용천을 말하는데, 용출되는 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양이 많아 가물어도 벼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용천에서 솟아난 물은 하논 내에 고여있어 호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벼농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동쪽 일부를 뚫어 호수처럼 고인 물을 동쪽으로 흘려보내고 논으로 조성했다〈그림 22〉, 〈그림 24〉. 이곳에서 흘러나간 물은 동쪽에 있는 호근천과 합류하여 천지연폭포로 흘러나간다.



<그림 22> 하논 일대 논 지구 추정 복원도
(①: 물망소, ②: 하논 동쪽 배수로)
(출처: 수치지형도(1:5,000, 2004)를 재구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23> 물망소
(촬영: 2014. 3. 15.)



<그림 24> 하논 동쪽 배수로
(촬영: 2014. 3. 15.)

하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동쪽 배수로를 통해 물을 배출시키면서 하논의 중앙에는 직선의 수로를 축조했다〈그림 25〉, 〈그림 26〉. 수로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망소의 수원이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가뭄이 들어도 농업용수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수로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인데, 그 안에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수문이 있으나 현재는 흔적만 남아있다. 현 경작인이 벼농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수로가 훼손되어 있어서 다시 복구해야 했는데, 이때 서귀포시청의 지원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28].



<그림 25> 하논 수문
(촬영: 2014. 3. 15.)



<그림 26> 하논 수로
(촬영: 2014. 3. 15.)

(2) 오늘날 벼농사 현황

하논의 경지면적은 전체 약 23㏊(약 7만 평)정도 되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당지역이 폐답되어 1990년대 후반에는 농사를 짓는 4가구의 식부면적이 약

28) 제보: 이종근(62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약 8.2㏊(약 2만 5천 평)정도로 줄어들어 약 35%의 경지만이 이용되었다. 하논에 벼농사가 활발하게 재개된 것은 1997년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종근 씨(62세, 이하 현 경작인으로 표시) 부부가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우연히 제주도에 왔다가 넓은 폐답지를 보고 벼농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현 경작인은 원래 살던 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는 임대를 하고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다. 당시 하논 대부분지역(약 8㏊)은 폐답되어 있었고 동쪽과 서쪽 일부지역(8.2㏊, 현재 폐답지역)에서만 일부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4가구가 벼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부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경작면적은 크지 않았다. 당시 폐답되었던 하논 중앙부의 넓은 논에서는 마소를 방목하고 있었는데 그 분뇨가 천지연폭포로 흘러내려가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하락을 우려한 서귀포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당시 제주에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논 오염에 대한 문제를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 경작인이 벼농사를 할 의사를 보이자 서귀포시에서는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이종근 씨의 제보에 따르면〈부록 2〉 황폐화된 경지를 재조성하는 과정에서 정가 1억 원 이상 드는 농기계 값의 반 값 이상을 지원해주고 망가진 수로와 논배미를 새로 구축할 때 필요한 인력을 동원해주는 등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벼농사를 장려했다고 한다. 처음엔 3년만 벼농사를 지으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짓던 농사를 계속 하다 보니 현재(2014년)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현 경작인에 앞서 먼저 손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은 7~8년 정도 더 경작을 하다가 고령으로 인해 2005년 전후로 벼농사를 그만두었다.

제주도에서 벼농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이후에는 제주도에도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쌀값의 하락으로 인해 직접 농사를 짓는 것보다 사먹는 쌀이 훨씬 더 저렴해지고, 더불어 감귤농사를 지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벼농사는 자연스럽게 폐작되었다. 벼농사를 짓지 않은지 40여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촌로들 외에는 벼농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는 현 경작인이 벼농사를 그만 둘 경우 제주도내 벼농사는 끝난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도외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이라는 점이 역설적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8년 전부터 하논의 벼농사는 현 경작인인 이종근 옹 부부만이 하고 있으며 농기계를 사용하여 8㏊(24,265.3평)의 논에 경작을 하고 있다. 소출양은 약 100t(40kg, 1000가마)정도다. 한 마지기(200평≒661㎡)에 쌀 0.1t(40kg, 10가마) 이상 생산된다. 현 경작인이 경작하는 논의 답주는 71명으로 1인당 소유면적 평균은 0.11㏊(341.7평)이다. 하논의 규모에 비해 답주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래서 논의 소유 면적이 넓지 않다. 이 중에서 가장 넓은 논을 소유한 사람은 0.5㏊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가장 적게 소유한 사람은 0.0013㏊의 논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쌀이 귀하던 시절의 제주의 상황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먹기 위해 쌀을 재배했다기보다는 팔거나 제사지낼 때 쓸 쌀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림 27〉은 하논의 지적도상 경계선을 표현한 그림이다. 좌측의 그림은 지적도에 표시된 논의 경계이고 오른쪽은 실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29].



<그림 27> 하논의 지적도와 일부 경지 세부구역
(출처: 지적도(2006년) 일부를 재구성, 촬영: 2014. 3. 15.)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이 하논의 지적경계는 매우 복잡하다. 수십 명의 답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다시 논에서 벼를 생산하는 시점에서 보면 쌀은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답주들이 하논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쌀이 흔한 작물이 되었고 또 폐작으로 묵혀두었던 땅에 농사를 짓는 까닭에 땅을 임대료를 줄 필요 없이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답주도 있었다. 하지만 무상임대를 할 수는 없어 지금 경작인이 답주들에게 논 임대

29) 우측그림 아랫부분에 보이는 논둑이 좌측 그림의 하단에 위치한 직선구간이고, 우측그림의 오른쪽에 보이는 수로가 좌측 그림의 우측에 보이는 직선구간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료로 총 약 4~500만 원 정도 지급한다. 답주들에게 임대료로 평당 2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현금 대신 쌀로 지불 할 때도 그 가격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한다[30]. 이곳의 쌀은 현 경작인이 직접 도정해서 판매하거나 정부미로도 보내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하논에서 정부미는 15.4t(40kg, 385가마)이 나갔다.

하논 분화구 복원과 관련하여 하논의 논을 임대하여 경작하는 현 경작인은 복원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는 입장이다. 경작인은 하논의 논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고, 고향에 본인 소유의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복원이 되어 벼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한다고 해도 별로 생계에 지장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논 내 답(畓)으로 표시된 지역에 가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과 하논 외륜부에 감귤농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약 15가구가 하논내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작 중인 논의 답주 71명을 제외하고도 현재 폐답지역의 답주들 까지 더하면 하논의 답주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하논 분화구 복원 사업은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진 정부에서 하논 분화구 복원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다.

15세기 후반, 어림잡아 16세기부터 시작한 하논의 벼농사는 21세기인 현재까지 500년 이상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도에서 '제일강정(第一江汀)'으로 불리며 논이 많아 쌀이 풍족하게 나는 것으로 유명했던 강정도 쌀값이 하락하면서 1989년을 마지막으로 벼농사를 짓지 않게 되었고, 뒤이어 예래, 중문에서도 벼농사가 전부 사라진 지금도 하논은 벼농사를 꾸준히 하면서 제주도 벼농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도는 유교적 형식윤리가 비교적 최근까지 남아 있어, 상례와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제사상에 반드시 쌀밥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쌀을 구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논과도 연관되었다. 특히 제주도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논을 많이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쌀이 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논은 많은 사람이 탐을 낼만한 농지였다. 산남의 중심인 서귀포에 위치하고 물이 풍족하여 벼농사를 꾸준히 지을 수 있으며 날씨의 영향도 덜 받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논은 하논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하논을 갖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였고, 그 결과 현재 하논은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누

30) 제보: 이종근(62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 소유하고 있다.

하논은 경작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에도 벼농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그림 28〉. 하지만 하논분화구복원사업으로 인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경관이다.



<그림 28> 하논 모내기 후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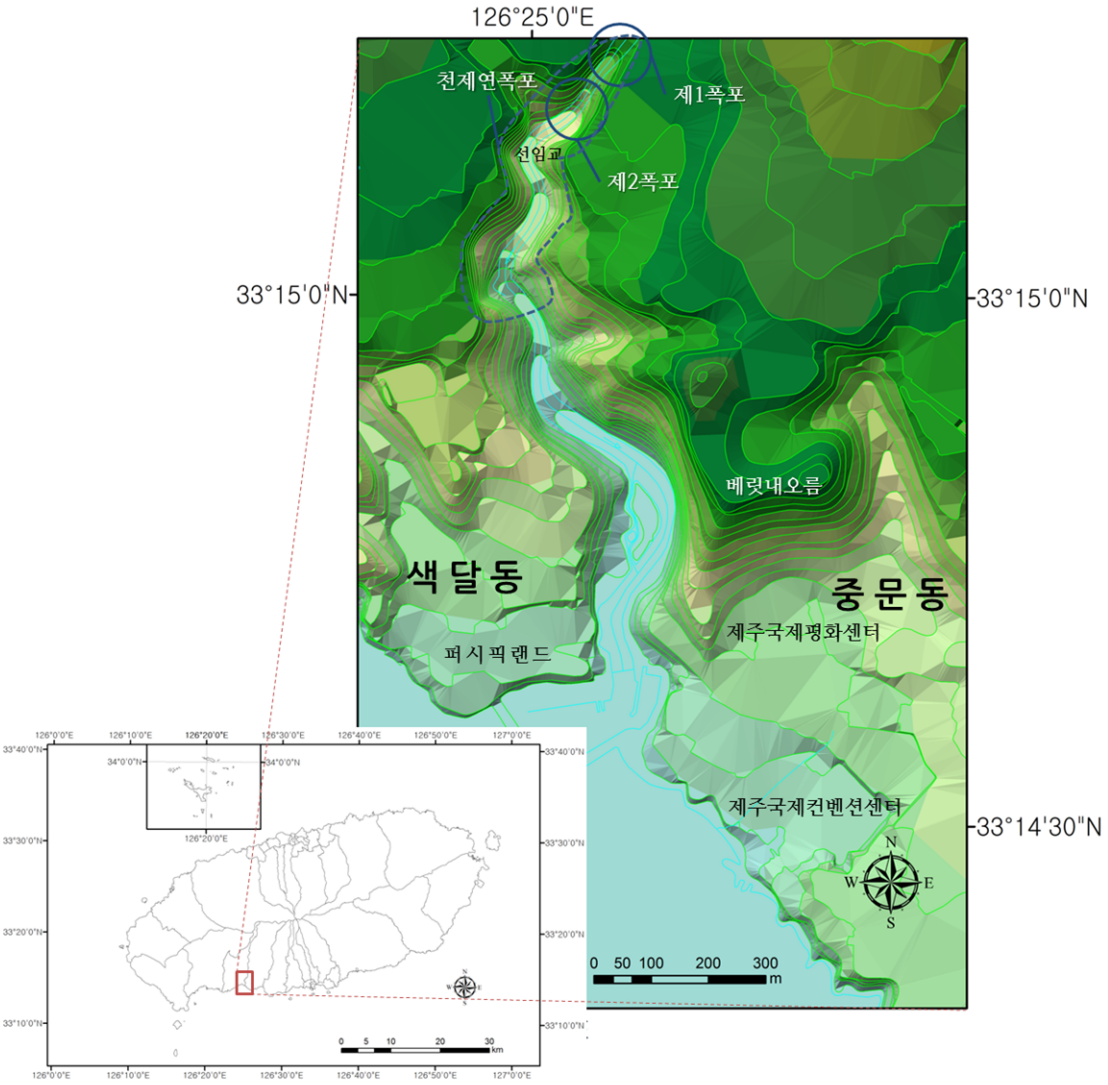
(촬영: 2013. 6. 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 일대

1) 연구지역 개관

이 장에서 다루는 벼농사 지역은 천제연 제1폭포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이다<그림 29>.



<그림 29> 중문 천제연 연구지역 개관

(출처: 수치지형도(1:5,000, 2004) 일부를 재구성.)

이 지역은 1897년 섯골수로가 완공된 이후 벼농사를 시작하여 1991년 한국관광공사로 토지 매각이 완료되면서 폐답이 되었다. 이 지역의 논은 본래 밭으로 이용되었다가 수로 공사를 통하여 논으로 개간된 것으로 논풀이과정이 특징적이다. 구한말부터 수로가 완공되면서 벼농사를 하였지만 본격적인 벼농사는 일제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점기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하논과는 다르게 자연적 입지조건만으로는 벼농사가 불가능 한 곳에 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중문동 천제연 일대 연구지역은 천제연폭포를 통해 흐르는 색달천을 기준으로 서쪽에 색달동이 있고 동쪽에 중문동·대포동이 있다. 천제연폭포는 3단 폭포인데 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폭포는 제1폭포와 제2폭포이다. 제1폭포는 웃골수로의 수원이고 제2폭포는 알골수로의 수원이기 때문이다. 연구지역은 현재 중문관광단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퍼시픽랜드,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이 위치해있어 본래 논의 모습을 찾아 볼 수는 없다. 제주국제평화센터 북쪽에는 성천답회의 이름의 유래가 되는 배릿내오름이 있다. 색달천은 색달동과 중문동 사이를 흐르는 상시하천인데, 천제연 제3폭포에서부터 하구에 이르는 구간 양안이 10~20m의 단애로 이루어져있다.

2) 논의 개척과정

본 장의 내용은 중문동 향토지 「불란지야 불싸지라」의 저자인 중문동 토박이 이성무 옹과의 답사를 통해 얻은 현장자료와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본 사례지역은 기존에 보도 자료로도 몇 번 소개되었지만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어서 인용하지는 않았다.

중문동 벼농사는 수로 축조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연적으로 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벼농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제연의 물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도록 관개수로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1) 수로 축조와 논풀이과정

천제연폭포는 유량이 매우 풍부한 폭포이다. 제1폭포는 강수 시에만 폭포가 형성되지만 폭포의 하단부에서 풍부한 양의 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폭호(plunge pool)는 늘 물이 가득 차 있고 더불어 제2폭포와 제3폭포가 늘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림 30〉. 그러나 이 물을 농사에 사용할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천제연 폭포의 양쪽으로 조면암질의 암괴가 절벽을 이루고 있어 수로를 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1893년에 색달리 주민 김천총이 주도하여 폭포의 서안에 물길을 내는 수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중간에 자금 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족으로 중지 되었다가 후에 대정군수를 지냈던 송경연이 인계를 받아 완성시켰다. 공사는 5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단단한 바위를 깨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 당시에 바위에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열에 의한 팽창과 찬물을 이용한 냉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피변화를 이용했다. 바위 위에 장작을 지펴 불을 피우고 소주를 부어 불을 키워 돌을 팽창시킨 후에 찬물을 부어 바위가 급냉수축하면서 깨지는 원리를 사용하여 공사를 했다. 이 수로의 이름은 색달천의 서쪽에 있다하여 '섯골수로'라고 불렸다〈그림 31〉.



<그림 30> 천제연 1폭포(ⓐ)
(촬영: 2013.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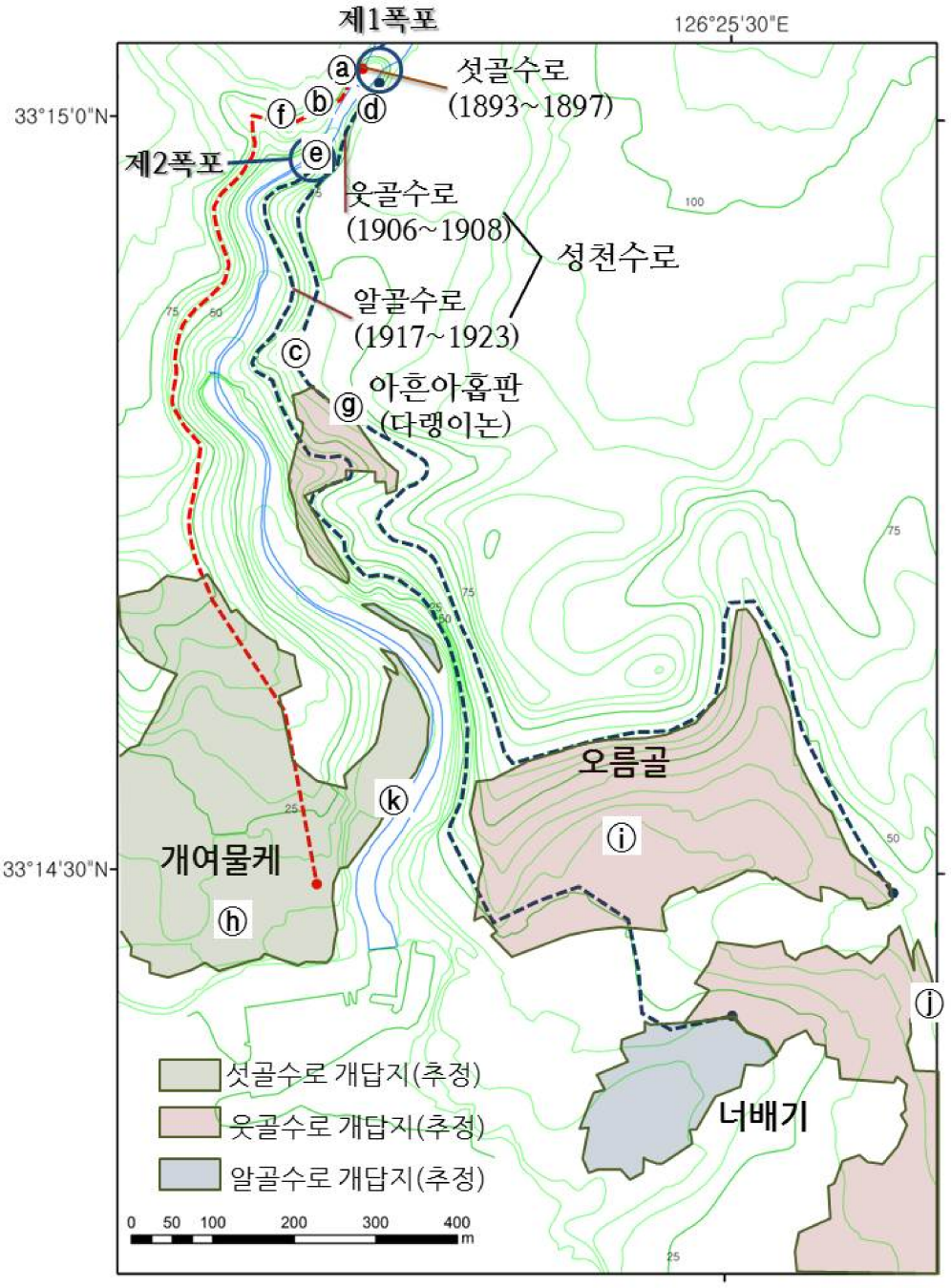


<그림 31> 섯골수로 시작지점(ⓑ)
(촬영: 2013. 6. 4.)

섯골수로는 총 길이 1889m이다. 수로는 천제연 제1폭포의 폭호 서쪽인근에서 시작하여 벼농사 지역인 '개여물케'까지 물을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개여물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 동쪽 일부지역을 이르는 지명인데, 현재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퍼시픽랜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된다〈그림 44〉.

섯골수로가 완공된 후에 두 개의 수로가 더 건설되었다. 천제연 인근의 벼농사 지역은 섯골수로 다음에 건설되는 두 개의 수로로 인해 완성된다. 후에 성천수로로 불리게 되는 이 수로는 비교적 근대적 기술을 활용하여 공사했다. 성천수로는 두 개의 수로로 나뉘는데, 고도 상 위쪽에 위치한 수로는 웃골수로, 아래쪽에 위치한 수로는 알골수로로 불렸다. 수로는 웃골수로가 먼저 만들어졌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32> 중문 천제연 수로 조성 당시의 수로와 논 복원도

(※ 알파벳 표시는 <그림 30> ~ <그림 45>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출처: 수치지형도(1:5,000, 2004) 일부를 재구성.)

웃골수로 공사는 1906년에 시작하여 1908년에 끝났는데, 전 대정군수 채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석이 공사비를 대어 만들기 시작했다. 공사도구는 일본에서 화약과 곡괭이를 들여왔다. 그러나 화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없어 돌을 쪼갤 때 어려움이 많았다. 화약을 사용할 때에는 바위 깊숙이 구멍을 판 후에 화약을 넣어야 적은 양으로도 바위를 쪼갤 수 있는데, 당시 기술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화약을 겉에서부터 써야했다. 이 때문에 사고도 많이 발생했고 효율도 떨어졌다. 웃골수로 공사 중에 가장 힘들었던 구간 역시 암괴를 뚫어야 했던 창구목에서 화폭목에 이르는 156m구간이었다〈그림 33〉, 〈그림 34〉[31]. 화약을 이용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여 화폭목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에서 곡괭이와 화약을 가지고 기반암을 뚫었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33> 화폭목(ⓒ)
(촬영: 2013. 6. 4.)



<그림 34> 화폭목 공사흔적(ⓒ)
(촬영: 2013. 6. 4.)

웃골수로는 천제연 제1폭포 폭호의 동안에서 시작하여〈그림 35〉 배릿내오름을 휘돌아 오름골과 이어지면서 너배기(廣伯伊) 부근까지 이어지는데 이로 인해 이 부근의 토지 약 16.5㏊(약 5만평)가 논으로 논풀이되었다. 뒤이어 1923년에 축조된 알골수로는 천제연 제2폭포에서 시작하여 너배기 부근까지 이어졌다〈그림 36〉.

31)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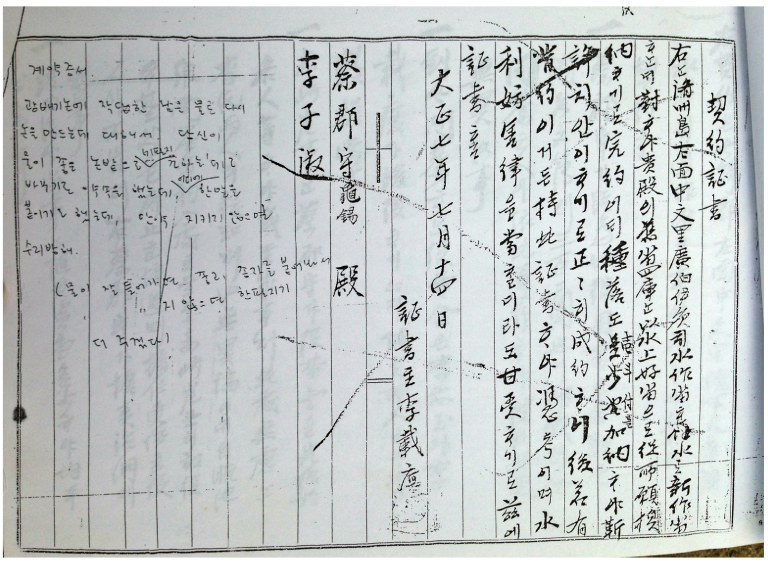


<그림 35> 웃골수로 시작지점(ⓓ)
(촬영: 2013. 6. 4.)



<그림 36> 알골수로 시작지점(ⓔ)
(촬영: 2013. 6. 4.)

이 수로로 인해 약 6.6㏊(약 2만평)의 논이 추가로 개간되었다. 알골수로의 축조를 끝으로 성천수로가 완공되었다. 수로의 공사비는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수로만큼 논을 개간하고 그 논에서 나온 소출의 절반을 수로 축조비로 지불하여 비용을 충당했다. 수로를 통해 공급받는 물이 농사를 짓고도 남게 되면 그 남은 물을 가지고 새로 논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계약증서로 남아있다〈그림 37〉.



契約記書

<그림 37> 계약증서
(출처: 이성무 개인 소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원문>

契約證書

右ᄂᆞᆫ 濟州道 左面 中文里 廣伯伊員에 司水作畓ᄒᆞᆫ 餘水로 新作畓ᄒᆞᄂᆞᆫᄃᆡ 對ᄒᆞ야 貴殿의 舊畓四庫ᄂᆞᆫ 以水上好畓으로 從所願換納ᄒᆞ기로 完約이되 種落도 1斗 付를 加納ᄒᆞ야 斬許치 안이ᄒᆞ기로 正히 成約ᄒᆞ니 後若有昔約이거든 持此證書를ᄒᆞ야 憑考이며 水利妨害律을 當ᄒᆞᆯ디라도 甘受ᄒᆞ기로 玆에 證書ᄒᆞᆷ.

大正七年 七月 十四日

證書 李載廈 蔡郡守 殿

李子淑

<해석>

계약 증서

위는 제주도 좌면 중문리 광배기 일대에서 (사람이) 물을 끌어들여 논을 만드는데 남은 물로 새로 논을 만드는데 대하여 귀하의 옛날 논 4곳[庫]을 흐르는 물의 상류[水上]에 물 걱정이 없는 좋은 논으로 바꿔주기를 소원하여 재촉하므로 완전히 약속하였으되 논 한마지기를 더 주기로 했는데 허가를 미루기[斬許]에 정정당당하게 계약을 이루었으니 이후에 만일 옛날 같은 약속이 있거든 이 증서를 가지고서 자세히 따지고 검토할 것이며 수리를 방해당하는 규칙을 당할지라도 달게 받아들이기로 이에 증거 하는 서류이다,

大正 7년(1918) 7월 14일

증서(証書)한 사람 이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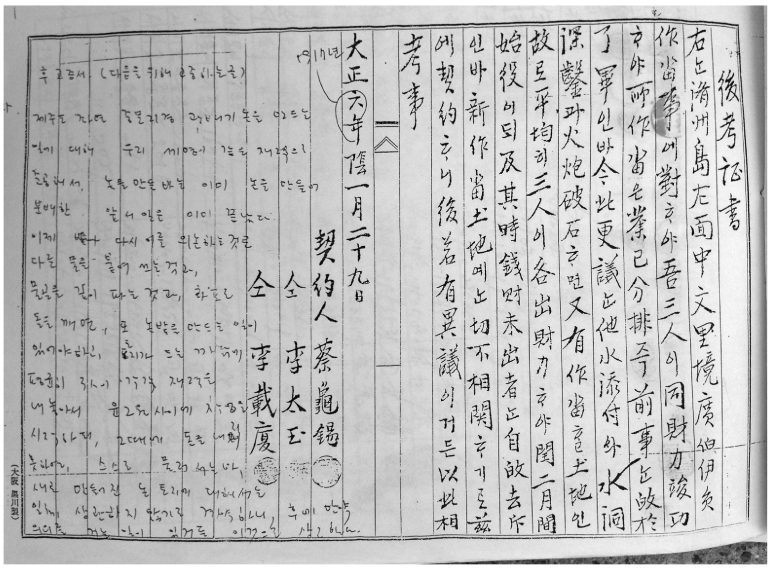
채군수 구석(蔡郡守 龜錫) 귀하

이자숙

위 계약증서는 답주들이 소유한 논 중에 물이 풍부한 네 곳의 논을 골라 그 물을 덜어 새로운 논을 만드는 내용의 증서이다. 새로운 논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덞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논 한 마지기를 더 주어 해결하고, 혹시나 후에 발생할 일을 염려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물을 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적어 두었다. 성천수로를 만드는데 호근리 이재하 氏와 대포리 이태옥 氏가 협력한 공이 컸는데, 이들의 활동은 계약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재하와 이태옥이 채구석과 함께 수로공사에 큰 재력을 투자한 문서가 후고증서란 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름으로 남아있다<그림 38>.



<그림 38> 후고증서

(출처: 이성무 개인 소장.)

<원문>

後考證書

右ᄂᆞᆫ 濟州道 左面 中文里 境 廣伯伊矣 作畓事에 對ᄒᆞ야 吾三人이 同財力竣功了畢인바 令此更議ᄂᆞᆫ 他水漆付와 水洞深鑿과 火炮破石ᄒᆞ면 又 有 作畓ᄒᆞᆯ 土地인 故로 平均히 三人이 各出財力ᄒᆞ야 閏二月間始役이되 其時錢財未出者ᄂᆞᆫ 自皈去斤인바 新作畓土地예ᄂᆞᆫ 切不相關ᄒᆞ기로 玆에 契約ᄒᆞ니 後差有異議이거든 以此相考事.

大正六年(1917년) 陰一月二十九日

契約人 蔡龜錫, 仝 李太玉, 仝 李載廈

<해석>

후고증서(다음을 위해 고증하는 글)

제주도 좌면 중문리에 있는 광배기 논을 만드는 일에 대해 우리 세 명이 같은 재력으로 준공해서 논을 만든 일은 이미 논을 만들어 분배한 앞서 일은 이미 끝났다. 이제 다시 이를 의논하는 것은 다른 물을 붙여 쓰는 것과, 물골을 깊이 파는 것과, 화포로 돌을 깨면, 또 논밭을 만드는 일이 있어야하고, 토지가 드는 까닭에 평균히 3인이 각각 재력을 내놓아서 윤2월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되, 그 때에 돈을 내지 못하여, 스스로 물러서거든, 새로 만들어진 논 토지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일체 상관하지 않기로 계약하니 후에 만약 의의를 거는 일이 있거든 이것으로 상고한다.

1917년 음력 1월 29일

계약인 채구석, 동 이태옥, 동 이재하

당시에 공사에 참가한 성인은 품삯으로 일당 3돈(엽전 30개)을 받았다. 논배미를 구축할 때엔 자갈을 골라내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 자갈을 다 골라내고 난 후에는 물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수평을 맞추고 흙을 골라내 논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했다. 벼농사는 물을 이용하는 농사이기 때문에 논의 구석까지 물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논바닥을 아무리 단단히 다진다고 하여도 물이 금방 빠지기 때문에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야만 했다고 한다[32].

성천수로란 이름은 웃골수로가 지나가는 오름인 배릿내오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배릿(별)내 (→ 별내) → 성천(星川)이 되었다. 성천수로의 두 수로인 웃골수로와 알골수로의 이름은 수로의 위치관계를 바탕으로 칭해졌는데, 위에 있는 수로가 웃골수로, 아래에 있는 수로가 알골수로가 되었다. 수로가 물을 보냈던 오름골은 현재 제주국제평화센터와 황무지로 이용되고 있고 너배기일대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2) 벼농사 방법

벼농사는 크게 파종, 시비, 제초·구제, 물 관리, 수확의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다.

① 경종·시비

중문동 성천답은 이앙법을 통해 파종을 했으며 벼의 품종은 볏짚을 이용하기 위해 키가 큰 품종을 키우거나 혹은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 통일벼를 재배했다. 시비는 화학비료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거름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시기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우선 파종 전에 볍씨를 모로 키우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료는 팽나무의 어린순을 잘라 갈아서 사용했고, 파종 후에 논에 뿌리는 거름은 자운영을 긁어모아 갈아서 거름으로 썼다[33].

② 제초·구제

32)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33)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농약이 들어오기 전까지 벼농사를 하면서 벼에 달라붙는 벌레의 구제법으로는 폐유를 사용했는데, 폐유를 물에 풀어 놓은 후에 벼를 툭툭 쳐서 벌레를 기름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벌레를 다 떨어뜨린 후에는 물을 흘려보내 벌레를 제거했다고 한다. 기름은 물에 뜨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기름만 흘려보내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폐유라고 할지라도 기름 자체가 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끔 바닷가에 고래가 죽어서 떠밀려오면 고래 기름을 이용해서 구제를 했다[34](법환마을회, 2000). 농약이 도입된 직후에는 농약을 뿌리는 도구도 없이 손으로 농약을 뿌리다가 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농약의 독성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시기였을 뿐더러 농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살포기가 뒤늦게 보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는 후에 농약을 뿌리는 기술과 장비가 보급되면서 해결되었다.

③ 물관리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물 관리이다. 이앙법은 안정된 물 공급이 없으면 실패할 위험이 큰 농법이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특히 이 지역은 천제연의 풍부한 물을 끌어다 벼농사를 지었다고는 해도 본디 물 빠짐이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 공급이 소홀하면 금방 물이 말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가 여타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성천수로의 물을 사용하는 답주들의 모임인 성천답회에서 물 관리를 맡을 사람인 '수감(水監)'을 선출하여 물 관리에 대한 일을 도맡게 했다. 수감은 1년에 쌀 1마지기를 수고비로 받았다(이 곳의 논 한 마지기는 150평=495㎡이다.). 논에 물을 댈 때는 반드시 수감과 상의해야만 했다. 천제연의 물이 아무리 풍부했어도 가물 때는 부족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없었다. 수감은 논마다 물을 공급할 날짜와 양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겨 물을 대면 다른 논에 피해를 줄 수 있었다. 수감의 역할은 성천답회의 모든 논에 필요한 물의 양과 공급시기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주 바꿀 수가 없었다. 임기는 다년제로 하였으나 고정된 임기는 없었다. 그러나 수감이 있었다고 해도 상류 쪽에 있는 논은 물을 먼저 댈 수 있어서 농사도 먼저 할 수 있었고, 하류쪽은 물을 나중에 대야했기 때문에 농사지을 시기를 맞추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수로 상류에 있는 오름골 논을 하류에 있는 너배기 논보다

34)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값을 더 잘 쳐줬다. 그러나 오름골 논이든 너배기 논이든 간에 할 것 없이 논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자갈밭이라서 농사짓기 불리했다[35].

④ 수확 · 유통

소출은 논마다 달랐는데, 오름골이 한 마지기당 5섬이 생산되었고, 너배기나 개여물케는 한 마지기당 4섬이 생산됐다. 특별히 오름골에 소출이 많았던 이유는 이곳의 땅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기름져 벼를 빽빽이 심을 수 있었고 수로와 가까워 물을 대기 수월하였기 때문이었다[36]. 수확한 쌀은 먹거나 팔았는데, 부유한 집에서는 시장에 내다 팔았으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제사 때 쓰기도 부족하여 팔지 못했다고 한다.

(3) 토지의 소유관계와 지주소작 관계

다년간에 걸쳐 만든 수로로 총 19명의 답주가 논을 소유할 수 있었고 여기에 소작인까지 더하면 약 20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벼농사를 했었다. 답주는 후에 84명으로 늘어났다. 성천답의 소작인은 답주와 3:7의 비율로 수확한 쌀을 나누었는데, 강정에서 수확량을 5:5로 나눈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박한 비율이었다.

이는 당시 상황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답주의 입장에서는 성천수로를 만들면서 드는 공사비용은 답주가 수확량의 절반을 내놓아 충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주가 소작인에 비해 수확량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이미 절반의 쌀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중문에 거주하는 채구석과는 달리 함께 재력을 쏟아 부은 이재하와 이태옥은 각각 호근리와 대포리에 거주하는 외지인이었다. 이들은 큰 재력을 쏟아 부은 만큼 이익을 내야 했기 때문에 강정과는 상황이 달랐다.

제주도민의 쌀에 대한 갈망이 일본의 산미증식계획과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공사를 일본이 힘들이지 않고 제주도민 스스로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개간한 논에서 많은 소출이 발생했다. 성천수로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개인 사재를 털어 공사를 시작했지만, 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논을 만들면서 이를 답주들에게 판매하고, 또 쌀을 생산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

35)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36) 제보: 고두희(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답주들 역시 논을 가지고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 소작인들에게 박하게 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작인들은 비록 열에 셋 밖에는 못 가져가지만 이마저도 구하기가 힘들어 답주에게 사정사정하면서 소작을 얻어내야 했으니[37] 소작인들의 몫을 더 깎아도 답주들은 소작인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강정의 답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쌀이 매우 귀한 곡식이었다는 점이 가장 크다. 논 한 평은 한전 세 평의 가치가 있었고, 소작인이 자기소와 쟁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밭을 갈아야 쌀 1말(4되=8리터)를 받을 수 있었으니 이를 통해 쌀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당시는 논을 많이 가지면 부자였고, 그런 까닭으로 마을사람들이 힘을 모아 수로를 뚫어 논을 만들기 위해 애쓴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 넘어오면서 논의 가치가 많이 퇴색되었다. 현재 논은 쌀값의 하락과 더불어 지목이 '답'으로 묶여있어 과수원으로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다[38].

제주에서 벼농사를 중히 여겼던 이유 중에는 유교와 관련된 문화에서 그 연관을 추론할 수 있다. 제주는 유교문화가 도외지역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되었는데, 민간에 유교 상례문화가 전파된 시기는 18~19세기부터이다(정희종, 2009). 그런 까닭에 최근까지 유교적 형식윤리가 강하게 남아있던 지역이기도 했다.

제주에서 상(喪)은 집안 경조사 중에 가장 큰 예식으로 생각했는데, 제주의 전통적 묘지인 '산담'을 조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산담 하나를 조성할 땐 상여를 나르고, 잔디도 마련하고, 묘지에 사용할 흙도 마련해야하고 봉분도 쌓아야 하고, 산담에 필요한 돌도 마련하고 또 쌓아야 하기 때문에 큰 작업이었다. 이 일을 위해서 상주는 마을 사람들 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총동원되어야 했기 때문에, 상주는 자기 집안의 장례를 위해 고생하는 온 마을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했다. 주로 쌀밥, 떡, 고기, 술 등을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정희종, 2009),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례를 한번 치르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다. 묘지를 조성한 이후에는 3년 상(喪)을 치르는데 소작농의 경우 제사를 지내다 보면 제사 지낼 쌀도 부족해서 보리밥과 쌀밥을 반반씩 지어 섞어서 올리기도 했다. 부잣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쌀로 만든 '곤떡'을 올리기도 했

37) 소작인은 가을철이 되면 답주에게 갈치와 같은 음식으로 답주에게 대접하여 소작을 받곤 했다(제보: 이성무).
38)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떡의 모양은 각자 의미하는 바가 달랐는데, 동그란 떡은 태양을 의미하고 반달은 달을 의미하고 네모난 떡에 다섯 점이 붙어있는 떡은 우주를 상징한다. 층떡이라고 해서 시루떡처럼 층으로 해서 올리기도 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고사리나 무나 콩나물을 기본으로 올리고 생선 한 종류와 메밀묵을 올리고, 돼지고기적을 몇 점 만들어 올렸다. 밥은 쌀밥으로 올렸다. 국은 갱국[39]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해서 올리기도 했다. 육지처럼 다양하게 올리지 못했다. 제주에는 적이 많은데 묵은 넉 점으로 꿰고 고기는 다섯 점으로 홀수로 꿴다. 고사리를 올리는 이유는 꺾어도 꺾어도 자라니 무럭무럭 번창하라는 의미로 올리고, 콩나물은 쑥쑥 자라나라고 올린다[40].

(4) 논의 토지이용 변화

벼농사를 짓기 위해 많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여 논을 개간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쌀이 도외지역에서 많이 유입되어 언제 어디서든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여파로 경제적 가치가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이 낮아지게 되었다. 더불어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이 지역에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천제연 일대에서 벼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논은 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흔적도 남지 않았고, 수로 역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섯골수로는 여미지식물원과 퍼시픽랜드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현재 극히 일부의 흔적만 남아있다〈그림 39〉.



<그림 39> 훼손된 섯골수로(ⓕ)
(촬영: 2013.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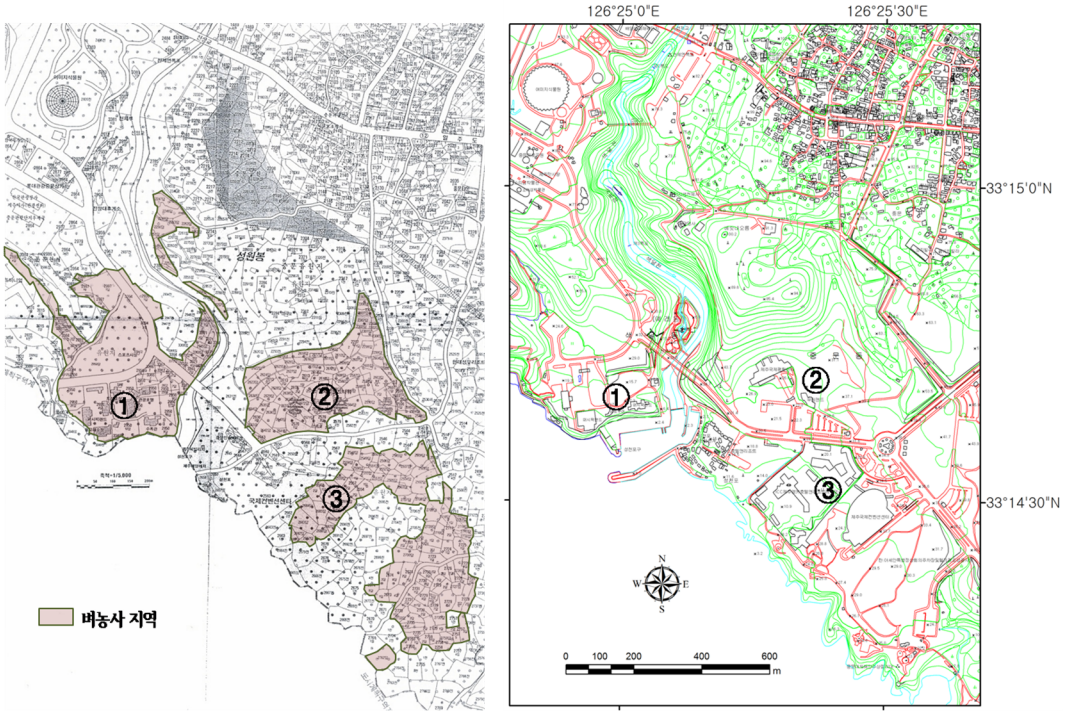


<그림 40> 현재 웃골수로의 모습(ⓖ)
(촬영: 2013. 5. 11)

39) 제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국. 생선이나 쇠고기 등으로 만든다.
40) 제보: 이성무(73세),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알골수로 역시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무너지고 막혀버렸는데 그 위로 수풀이 자라면서 현재는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손상되었다. 오직 웃골수로만이 그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상태이다<그림 40>.



<그림 41> 천제연 일대의 토지이용변화
(출처: 지적도(2006), 수치지형도(1:5,000, 2004)의 일부를 수정 및 재구성.)

<그림 41>은 중문 천제연 논의 토지이용변화를 나타낸 지도이다. <그림 41> 왼쪽에 있는 지도는 2006년 제작된 1:5,000 지적도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2008년에 제작된 1:5,000 수치지형도이다. 사용된 지적도의 제작 시기는 비교적 최근이지만,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벼농사를 했었던 지역이 여전히 '답'으로 표시되어 있어 과거 벼농사지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①지역은 개여물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섯골수로를 통해 논으로 개간되었던 지역이다. 현재는 퍼시픽랜드와 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림 42>. ②지역은 오름골 일대로 웃골 수로를 통해 논으로 개간되었던 지역이며 현재는 국제평화센터와 황무지로 이용되고 있다<그림 4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42> 퍼시픽랜드로 이용되고 있는 개여물케 일대(ⓗ)
(촬영: 2013. 6. 4)



<그림 43> 제주국제평화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오름골일대(ⓘ)
(촬영: 2013. 6. 4)



<그림 44>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너배기 일대(ⓙ)
(촬영: 2013.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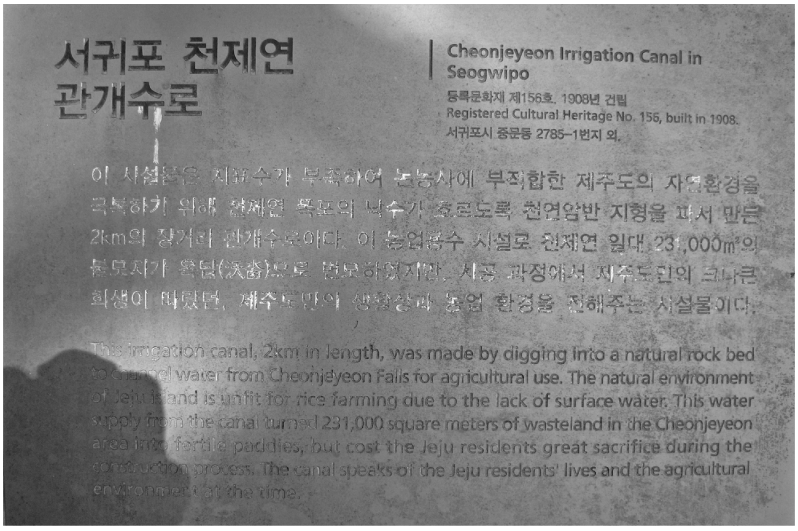
<그림 45>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색달천 하구일대(ⓚ)
(촬영: 2013. 6. 4)

③지역은 너배기 일대인데 웃골 수로와 알골 수로를 통해 개간된 지역으로 현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그림 44〉. 이 외에도 배릿내오름 남서쪽으로 흐르던 색달천에도 논이 있었는데 이곳에 있던 논들은 공원으로 토지이용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5〉.

2005년에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제 제156호로 제주도 중문동 일대를 논으로 만든 「성천답관개수로」를 지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문화재로 지정된 웃골수로는 섯골수로나 알골수로처럼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성천답관개수로는 자연환경의 제약을 극복하여 농업환경을 개척한 제주도민의 정신과 그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농업환경이 만든 문화경관을 잘 보여주는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그림 46〉.



<그림 46>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유적비

("이 시설물은 지표수가 부족하여 논농사에 부적합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천제연 폭포의 낙수가 흐르도록 천연암반지형을 파서 만든 2km의 장거리 관개수로이다. 이 농업용수시설로 천제연 일대 23,000㎡의 불모지가 옥답(沃畓)으로 변모하였지만, 시공과정에서 제주도민의 크나큰 희생이 따랐던, 제주도민의 생활상과 농업 환경을 전해주는 시설물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종달리 간척논

1) 연구지역 개관

종달리 간척논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위치한다. 이곳의 논은 두 곳이 존재하는데, 한 곳은 지미봉 서쪽에 하도리와 인접한 만에 만든 간척지이고, 다른 한곳은 지미봉 남쪽에 위치한 만의 간척지이다. 지미봉 남쪽의 간척지는 천일염 생산을 위한 염전으로 간척된 토지인데, 이를 논으로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벼농사의 기간은 짧았지만 제주도에서 유일한 간척 논이며 해방 이후에 개간된 논이란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림 47〉은 종달리 논을 표시한 지적도이다. 서쪽에 위치한 논이 제1수전이고 동쪽에 위치한 논이 제2수전 지역이다. 제1수전은 일제강점기에 간척이 시도되어 벼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곳도 제2수전은 염전으로 사용했던 간척지를 개간하여 논으로 탈바꿈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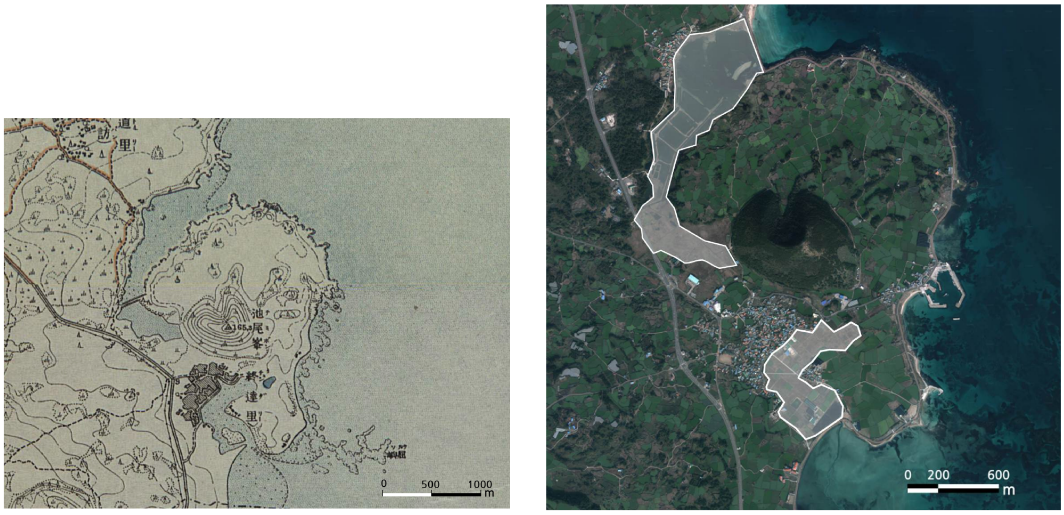
<그림 47> 종달리 논

(출처: 지적도(2006) 일부를 재구성.)

〈그림 48〉은 종달리의 지형변화를 비교한 지도인데, 간척되기 이전의 종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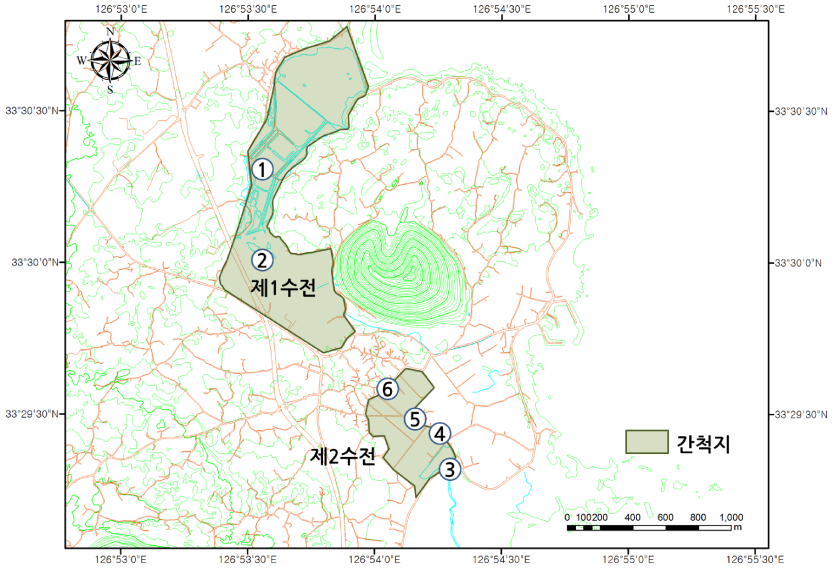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리 지역의 지형이 간척이후에 만이 메워져 육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구좌읍 종달리 일대 지형변화
(좌: 조선지형도, 1918; 우: 다음 항공사진, 2011.)

〈그림 49〉는 종달리 간척지와 현장사진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이다. 간척지 부근에 벼농사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9> 종달리 간척논 개관
(※ 숫자는 <그림 52> ~ <그림 59>(<그림 54>,<그림 57> 제외)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출처: 수치지형도(1:5,000, 2004) 일부를 재구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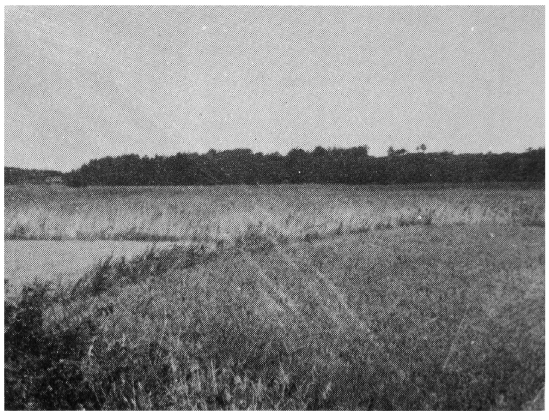
2) 종달리 벼농사의 전개과정

(1) 종달리의 논풀이 과정

종달리 논은 제1수전과 제2수전으로 나뉘는데, 논이 조성된 시기와 위치의 차이로 구분했다[41].

① 종달리 제1수전

갯벌이었던 서북쪽 일대 만 내부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1800년대 후반에 전 대정군수 채구석이 간척을 시도하였다. 그는 중문지역에 수로를 건설하여 수답을 개간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 지역을 논으로 만드는 데에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해수의 출입을 막았으나 지반 아래에서 해수가 유입되어 논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이 지역에 소(沼)가 형성되었고 간혹 익사자가 발생하면서 종달리 주민의 원망을 사게 되어 "대정놈의 소"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결국 채구석은 제1수전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 땅을 구입한 사람은 전라도 부자인 송구래였다. 송구래는 이곳에 이중으로 댐을 쌓고 해수의 유출을 통제했는데, 바다쪽엔 양어장을 만들고 내륙에는 논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오래 가지 못했는데 이곳의 주인이 자주 바뀌게 되면서 수리시설을 비롯한 논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폐답지로 남아있다〈그림 50〉, 〈그림 51〉(김승태 외, 1987), 〈그림 52〉, 〈그림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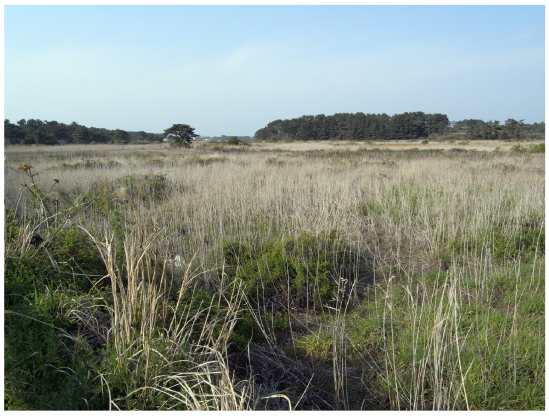
<그림 50> 제1수전의 1980년대 모습
(출처: 종달리, 1987, 지미의맥, 77.)



<그림 51> 제1수전의 제방
(출처: 종달리, 1987, 지미의맥, 77.)

41) 종달리지인 「지미의 맥(1987)」에서도 두 수답을 나누어 서술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52> 제1수전 현재모습 (②)
(촬영: 2014. 4. 11.)



<그림 53> 제1수전 제방의 현재모습 (①)
(촬영: 2014. 4. 11.)

② 종달리 제2수전

종달리 제2수전은 지미봉 남쪽에 있는 만을 간척한 염전을 개간하여 만든 논이다. 종달리 사람들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여 그 소금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했었는데, 염전 일이 곡식 농사를 하는 것보다 고되고 천시 받는 일이어서 이곳을 논으로 개간하기 위해 정부에 많은 요구를 했다. 6. 25전쟁이 끝난 후에 정부에서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종달리 천일염전을 논으로 개간하려고 했다. 1957년 동부수리조합을 창립하고, 9월부터 연기동산의 돌과 지미봉의 송이를 운반하여 간척공사를 했다. 1960년 12월 31일 제방을 완성하여 32㏊의 간척지를 만들었다〈그림 54〉, 〈그림 55〉, 〈그림 56〉.



<그림 54> 종달리 제2수전의 모습
(촬영: 2013. 5. 2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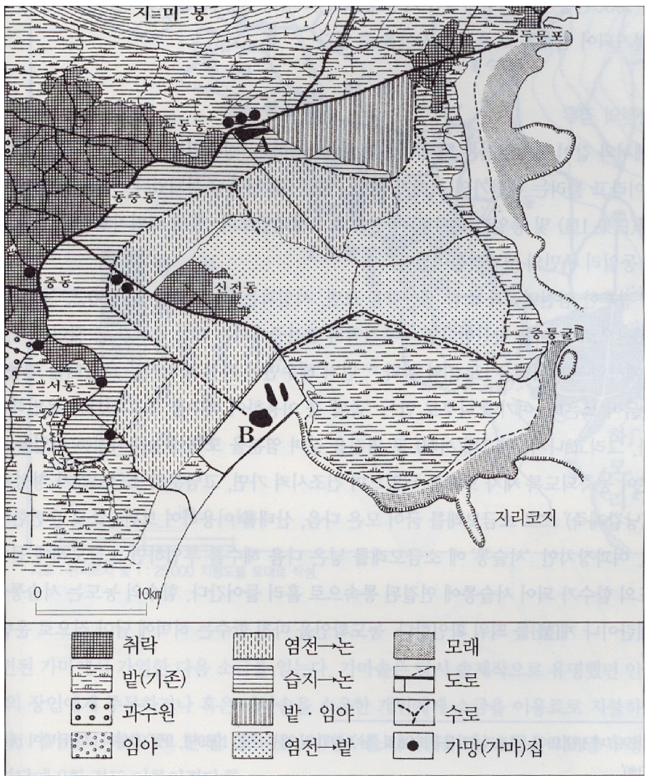


<그림 55> 제2수전 제방 (④)
(촬영: 2014. 4. 11.)



<그림 56> 제2수전 수문 (③)
(촬영: 2013. 5. 24.)

그러나 4. 19혁명으로 정부 상황이 어지러워져 중간에 자금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공사는 난항을 겪다가 1970년대에 다시 재개되었다. 간척이 끝나고 염분을 빼고 논으로 만드는 시간을 거쳐 총 공사기간 12년 만인 1969년에 완성했다.



<그림 57> 소금생산 이후 종달마을의 토지이용 변화
(출처: 정광중·강만익, 1997, 36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57〉은 염전 이후에 종달 마을의 토지이용 변화를 나타낸 지도이다. 지도 중앙에 위치한 신전동을 중심으로 염전과 습지지역이 논으로 변경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논풀이는 종달리 지역 주민의 오랜 바람이었는데 그 염원을 이루어준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구기춘과 북제주군수 김인화의 공덕비가 제2수전 논머리에 세워져 있다〈표 5〉. 공덕비에는 갯벌을 간척하여 벼농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표 5> 제2수답 논풀이 기념 공덕비



"바닷물 밀려 들든 옛날 갯벌이
황금빛 물결치는 옥답이 되어
풍년송 하늘 높이 울려퍼지니
높으신 그 은덕의 보람이어라.
이 기쁨 잊지 않고 언제까지나
자손만대 길이길이 간직하리라.

여기 버려졌던 넓은 갯벌에
영글은 벼이삭이 넘실거리고
보람찬 새 희망의 꿈을 이루니
높으신 그 은덕의 보람이어라.
이 희망 길이길이 언제까지나
자손과 더불어 간직하리라."
(출처: 구자춘 송덕비, 김인화 공덕비.)

종달리는 총 약 737만원을 들인 간척공사를 통해 논 24㏊, 한전 8.1㏊ 총 32㏊의 농지를 개간했다. 130세대가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첫 해 10a(a=100㎡)당 225㎏의 쌀을 생산하였다(제주신문, 1969. 9. 30; 종달리, 1987에서 재인용). 첫 해 농사는 성공적이었지만 종달리 농민들은 벼농사를 지어왔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벼농사를 짓는 것이 낯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정부의 농업지도를 받았는데 정부도 벼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다. 일례로 행정기관에서 볍씨를 잘못 나눠줘 조생종과 중생종이 함께 혼작되는 바람에 고충을 겪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42].

벼농사는 1990년대에 폐답되기 시작했다. 벼농사를 하던 주민 대부분이 밭

42) 한라일보(김치훈), 2002. 8. 19., "이것이 농정현실"…農心만 울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농사와 벼농사를 겸했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성이 없는 벼농사를 하기 보다는 밭농사의 경지이용률을 높이는 쪽을 선택했다. 노동력은 많이 소모하면서 밭농사보다 소득이 더 낮은 벼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2) 폐답이후의 상황



<그림 58> 제2수전의 도수로 (⑤)
(촬영: 2013. 5. 24.)



<그림 59> 종달리 정미소 (⑥)
(촬영: 2013. 5. 24.)

벼농사는 대부분 1990년대에 폐답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폐답되었다. 처음에 정부에서 논풀이한 논을 할당받아서 벼농사를 하다가 후에 평당 5만원을 주고 논을 구입하였다. 1세대 당 500평씩 분양받았는데, 폐답이 된 지금은 외지인들이 이곳의 땅을 대부분 구매하였고, 주택 등을 짓기 위해 토지변경도 해놓은 상태이나, 지금도 벼농사 경관이 남아있다. 〈그림 58〉은 제2수전에 물을 공급하던 도수로인데 현재도 물이 흐르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림 59〉는 정미소인데 비록 벼농사는 하지 않지만 건물과 도정에 사용되는 기계는 그대로 남아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요약 및 결론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제주도가 가진 특별한 자연환경에서 나타나는 벼농사 개척 과정과 수리시설의 확보 방법, 농법과 토지소유 관계에 대해 밝혀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문헌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 벼농사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분류하고 또한 사례지역으로도 분류해서 벼농사 지역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벼농사 지역의 변화 양상을 시대별로 분류해보면, 조선시대까지는 습지나 상시 하천과 같이 물의 풍부한 지역에서만 벼농사를 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수로를 이용해서 물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도 벼농사를 행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저수지와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벼농사를 했으나, 쌀값이 떨어지면서 벼농사는 자연스럽게 폐작되었다. 제주도에서 쌀은 인구부양력이 높은 식량작물이라는 점 외에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과 유교적 전통(가정의 대소사)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쌀이 고소득 작물이었다. 제주에서 벼농사를 가장 많이 했던 지역인 강정동에서는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쌀값이 비쌌기 때문에 강정 주민들은 재배한 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팔아서 현금화 함으로서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제주에서 쌀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용천이 풍부하고 넓은 평지가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는 일부 마을만이 벼농사를 할 수 있었다. 그 이후 토목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리시설의 확충과 간척 등을 통해 벼농사를 행하려 했던 배경도 쌀이 고소득 작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도외지역에서 쌀이 풍부하게 들어오면서 쌀값이 하락하는 바람에 벼농사를 짓는 것도 큰 소득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밭농사보다 더 낮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이 폐답되었으며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하논에서만 벼농사가 재개되었다.

하논이나 천제연 일대의 논은 소규모의 경지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쌀의 생산이 순수한 이익 창출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상례용 쌀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 것이다. 예를 들면 천제연 일대 벼농사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역에서 수확한 쌀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먹을 쌀이 없었다고 한 사실로 보아 쌀은 제사 때 반드시 필요한 작물이었고, 유교적 문화가 남아있는 제주에서 식량이상의 문화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쌀은 밥이나 떡으로 만들어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는데 상례문화 중에서 장례문화를 크게 여겼던 제주에서는 장례를 한번 치를 때마다 많은 양의 쌀을 사용해야만했다.

제주도에서 벼의 재배 기간은 약 6개월인데 직파의 경우 청명이 지난 이후에 파종하고 이앙한 경우에는 장마철에 맞춰 모내기를 하며 수확은 10월 초순 전후로 한다. 벼농사는 밭갈이로부터 시작해서 수확과 탈곡에 이르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경종이후에는 물관리와 논매기, 구제 등을 통해 쌀을 생산했다.

본 논문의 사례지역은 서귀포시 서홍동과 호근동에 위치한 하논, 중문동 천제연 일대, 종달리 간척지로 선택했다. 하논의 경우에는 15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벼농사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며,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란 점에서 주목하였다. 중문동 천제연 일대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벼농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토지는 평탄하고 넓었으나 물이 부족하여 벼농사를 할 수 없었던 지역에 수로를 건설하여 벼농사를 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종달리는 해방이후에 벼농사가 이루어진 지역인데, 일제강점기에 논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었다가, 해방이후에 염전으로 활용되던 간척지를 논으로 개답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하논에서는 현재 한 가구가 기계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중문동과 종달리 지역은 이미 오래전에 벼농사를 그만 두었다. 중문동의 경우에는 중문 관광단지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벼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종달리의 경우에는 쌀값이 떨어져 본업인 밭농사에 더 집중하면서 폐답이 되었다.

제주도의 벼농사는 규모나 기간 면에서 도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작고 짧은 것이 사실이다. 밭농사에 의존하는 제주도 농촌경제의 특성상 현시점에서는 논이 일부 남아있어도 대부분 벼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벼농사재배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행하고 있는 벼농사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농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벼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역사지리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제보자의 정보가 틀릴 경우 연구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인터뷰 대상이 대부분 오래전에 벼농사를 그만둔 고령자란 점이 기억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최대한 많은 제보자를 확보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또한 향토지 등을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분명히 한계점은 남아있다.

제주도의 벼농사지역은 수답뿐만 아니라 건답에서도 넓게 이루어졌는데, 건답에서 재배했던 육도(陸稻)의 경우에는 밭에서 키운다는 특징 때문에 벼 외에도 작물 선택의 폭이 넓고 지적도상 답(畓)으로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에 제작된 지적도를 바탕으로 벼농사지역을 파악하였는데,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현재 폐답된 지역도 답(畓)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지적도의 제작방식[43]을 염두에 두어 보았을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지역도 남아있을 수 있으며, 그 면적에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황상 벼농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은 지역은 현재 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확실하게 서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를들어 구시물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삼별초에 의해 항파두리 성 내에서 벼농사를 한 정황은 있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벼농사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하게 되었다.

끝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처 자료를 구하지 못한 해방 이전 부분의 기록은 더 늦기 전에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지적도는 지형도처럼 특정 해에 모든 지목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목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그 변경된 지목만 갱신하여 서비스하기 때문에 특정연도의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적도는 대부분 수십 년 전의 지적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고문헌

金正浩, 1862-1866, 大東地志.

新增東國輿地勝覽(第38券 全羅道 旌義縣), 1530.

李源祚, 1841, 耽羅誌草本.

李元鎭, 1653, 耽羅誌.

濟州大靜旌義邑誌, 1793.

濟州邑誌, 1899.

光緖午年 相換記 土地賣買證書, 1879,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

同治八年 防水畓 土地賣買證書, 1869,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

논문

강창화 · 정광중, 2014, “제주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실태와 특성”,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1), 153-173.

高昌錫, 1993, “朝鮮後期 濟州島 田畓文記의 硏究”, 耽羅文化, 13, 81-123.

고영기, 1997, “제주도의 벼농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수진 · 안상낙 · 서정필 · 홍하철 · 김연규 · 황흥구 · 문헌팔 · 최해춘, 2000, “우리나라 재래벼의 유전적 다양성”, 韓育誌, 32(2), 186-193.

金相昊, 1969, “朝鮮時代 水田 農業硏究”, 文敎部 學術造成費硏究.

金英蘭, 2010, “조선후기 제주지역 土地賣買 연구”, 韓國學中央硏究員 韓國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盧道陽, 1968, “15世紀 朝鮮의 農牧業”, 明大論文集, 2, 143-191.

박태훈 · 고은경 · 현진미, 1999, “제주도 논농사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백록학술상 당선작.

손경희, 2006, “일제시기 경상북도 경주군 서면수리조합과 일본인 농업경영”, 대구사학, 82, 147-206.

李俊善, 1998, “江陵地域의 低濕地 開墾過程”, 문화역사지리, 10, 55-68.

李燦, 1963, “稻作의 歷史 地理的 考察; 起原과 傳播에 關하여”, 地理學, 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0-66.

정광중 · 강만익, 1997,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종달 · 일과 · 구엄 염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18, 351-379.

鄭然泰, 1988, “1910년대 일제의 農業政策과 植民地 地主制-이른바 「米作改良政策」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20, 413-502.

정치영, 2004b, “조선시대 벼농사 농법”, 자연보존, 125, 17-29.

정희종, 2009,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징과 변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관훈, 1997, “1930년대 제주도 농업생산력 변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8, 275-303.

許文會 · 高熙宗 · 徐學洙 · 朴淳直, 1991, “우리나라에 栽培된 Indica벼”, 韓作誌, 36(3), 241-248.

단행본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국립제주대학교, 2002, 제주사람들의 삶: 만농 홍정표선생 사진집, (주)일원피앤씨.

국토교통부, 2014, 지적통계자료-행정구역별 국토면적.

金奉玉, 1987,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金承泰 · 梁承弼 · 任弘一 엮음, 1987, 地尾의 脈: 終達里誌, 대동원색인쇄사.

김영진, 17세기 수도재배의 기술체계; 한국농업사회 편, 2003,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 국학자료원.

김종근, 1988, 猊來洞誌.

김태호, 2006,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저수지.

南仁熙, 1985, 濟州農業의 百年, 泰和印刷社.

남제주군 성산읍, 2005, 城山邑誌, 제주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포마을회, 2001, 큰갯마을, 경신인쇄사.

도리국민학교 편, 1987, 鄕土誌: 道頭 · 梨湖洞.

문화콘텐츠닷컴, 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www.culturecontent.com.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朴贊浩・李鐘烈・金東岩, 1982, 飼料・綠肥作物學, 鄕文社.

법환마을회, 2000, 法還鄕土誌, 정아기획인쇄사.

北濟州郡 光令一里, 1990, 光令略史.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 2000, 濟州 高山鄕土誌.

星川畓會, 2003, 星川畓灌漑遺跡碑 입회내용.

星川畓會, 1917, 後考證書.

星川畓會, 1918, 契約證書.

尹京老, 2001, 鄕土 江汀(改正增補版), 도서출판 디딤돌.

이성무, 1996, 중문향토지 불란지야 불싸지라, 유경문화인쇄사.

정광중, 2011, 인구 동향과 입지 환경; 옹포천 주변 마을의 자연과 생활문화, 제주 고고학 연구소, 71-107.

정치영, 2004a, 산지 생태에 적응한 지리산지 농민의 전통 농법; 이도원 엮음,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318-347.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古文書集成, (주)일원피앤씨.

제주도, 1976-2005, 제주통계연보, 제주도.

濟州道, 2006, 濟州道誌.

濟州道廳, 1937, 濟州島 勢要覽.

濟州道廳, 1939, 濟州道 勢要覽.

제주특별자치도, 2006-2012, 제주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

朝鮮總督府, 1929, 生活狀態調査, 其二: 濟州道.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0-2040.

통계청, 2014, 2013년 전국(도별) 논밭별 경지면적.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 곶자왈의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지도

1872郡縣地圖(旌義郡), 1895.

국토지리정보원, 2004, 1:5,000 수치지형도.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1918, 朝鮮總督府.

다음 지도, http://map.daum.net.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瀛洲山大總圖, 1721(추정).

李衡祥, 1702, 耽羅巡歷圖 - 漢拏壯囑.

李衡祥, 1702, 耽羅巡歷圖 - 明月操點.

濟州三邑全圖, 1872.

耽羅地圖幷序, 1709.

한일지도판매주식회사, 2006, 제주특별자치도 지적, 임야약도(1:5,000).

보도자료

한라일보(김치훈), 2002. 8. 19., "이것이 농정현실"… 農心만 울려.

웹페이지

위키피디아, 산미증식계획, http://ko.wikipedia.org/wiki/산미증식계획(검색일: 2014. 6. 7.).

구술

제보: 고두희(73歲),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보: 김갑득(75歲),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보: 윤광제(75歲),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보: 이성무(73歲),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보: 이종근(62歲),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제보: 정도순(54歲), 2014,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It was very difficult for people who lived in Jeju Island to have enough rice even though the staple food of the Koreans is rice. It was not only hard to bring a great deal of rice in Jeju, but also the rice crop in agriculture has formed only one percent of rice production in a situation of environmental limitation. The main reason why doing rice farming was tough is that the volcanic topography has not allowed them to store enough water which makes grow crops. To produce sufficient rice for Jeju citizens, they have made various efforts; subsequently, we have been researching for the process of the reclamation work through studying materials of reference and making field investigation.

The aspect of regional transition of rice farming can be classified in the respect of age. In the Joseon Dynasty era, they were farming around the areas having plenty of water such as swamp and river stream; likewise,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they tried to do rice farming in the region used as a vegetation field by using waterway. Although they did farm work through reservoirs and reclaimed field after liberation in 1945, rice farming was no longer maintainable due to the price of rice has fallen dreadfully. Rice had high fecundity and the strong ability to support as compared with other crops, and to draw a large income; furthermore, it was necessary to strongly remain the traditions of Confucianism.

Because the costal flatland with abundant spring water had to be ready for rice farming, it was possible to farm in just few towns by the time of Joseon Dynast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reason why they have challeng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civil engineering technology, expansion of irrigation facilities and reclamation projects is that rice farming for high income was a big factor; however, the price of rice in Jeju Island has falle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readfully due to the influx of tons of rice from outside the province; besides, cultivating rice crop got much lower incomes than doing dry-field farming, so rice farming was no longer retainable since 1990's; nonetheless, rice farming has recommence only in Hannon, Jeju Island.

Rice paddy around the areas of Hannon and Cheonjeyeon was own by lots of local residents, which might be meant that this was to secure rice for the funeral rites no for profit-making purpose; for instanc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y complained there no more rice for food after the ancestral rites with rice retained from Cheonjeyeon, the rice was necessary to perform ancestral rites and seemed like having more cultural values than just food for living in Jeju Island strongly remaining the traditions of Confucianism.

It takes almost 6 months to cultivate rice, so they sow rice seeds for the rice direct planting after passing over the clear and balmy season; likewise, they transplant seeding during the rainy season and then harvest rice in early October. Rice farming is going alone from plowing rice paddy to harvesting and threshing, and then they produce rice through managing water, weeding a rice paddy and extermination of vermin after grinding and seeding.

The case regions of this project paper selected Hannon where is located in Seohong-dong Seogwipo city, Cheonjeayeon in Jungmun-dong and polderarea of Jongdal villiage where is located in Gujwa-eup Jeju city. In Hannon, rice faring has been keeping going on since late 1600's and been worthy of notice as having a great environmental condition for rice farming. In Cheonjeayeon, farming work had been started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region was plat and big enough to do it, but they faced intolerable drought, so what they built the irrigation canal was distinctive to support sufficient water. Lastly in Jongdal village, rice faming was made up of this area right after the liberation and then this area was left apparently as not being able to cultivate rice crop; nevertheless, it became a practicable reg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for the farm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a salt pond to a rice field through the highly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y.

Only a family is still farming with agricultural machines in Hannon area; however, long ago in Jungmun-dong and Jongdal village rice farming was no longer able to be cultivated any more. Especially in Jungmun-dong they stopped farming because the tourist facilities complex was indiscriminately developed; besides, in Jongdal village their income was way lower since the price of rice in Jeju Island has fallen appallingly, rice farming was no longer retainable so by more focusing on doing dry-field farming.

It is certain that cultivating rice in Jeju Island is exorbitantly lacking in size and period of time. In the quality of rural economy even though there are still some of rice paddies, at this point in time they do not rice farming; for this reason, people who have memory from rice farming experiences are getting decreased in Jeju Island. Rice farming is enacted everywhere in South Korea but Jeju Island because no one knows whether the rice farming might disappears or not. Pursuantly, on this research we have bent over backward to reach out to place on record of the overall process of rice farming in Jeju Island with the approach and analysis to historical geography.

Keywords: Jeju Island, rice crop, Hannon, Cheonjeyon, Jongdal vill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 록

1. 제주도 쌀 생산 면적과 생산량

<표 6> 제주도 쌀 생산 면적과 생산량 (1952~2012)

(단위: ha, M/T)

연도	미곡 생산량		논벼(水田)		밭벼(旱田)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47~1951 평균	2,480	1,988	758	1,088	1,722	900
1952	2,344	1,120	552	394	1,792	726
1953	2,672	1,722	787	479	1,885	1,243
1960	3,102	2,677	961	1,458	2,141	1,219
1965	5,000	6,529	938	3,117	4,062	3,412
1970	2,000	2,702	924	1,980	1,076	722
1974	2,901	5,092	914	3,144	1,987	1,947
1975	2,541	5,589	972	3,591	1,568	1,997
1976	2,441	4,729	973	3,694	1,470	1,035
1977	2,077	5,625	989	4,109	1,088	1,516
1978	1,590	3,458	696	2,737	893	721
1979	1,409	3,942	821	3,115	588	827
1980	2,037	4,126	810	2,589	1,227	1,536
1981	1,769	4,384	892	2,744	877	941
1982	1,723	4,768	1,112	3,827	611	941
1983	1,762	4,529	1,105	3,714	657	815
1984	1,374	4,161	950	3,474	424	687
1985	1,158	3,699	901	3,257	257	442
1986	1,165	2,305	723	1,669	442	636
1987	1,205	3,270	796	2,665	409	605
1988	911	3,443	755	3,161	156	282
1989	943	3,175	665	2,641	278	534
1990	797	2,488	551	2,035	246	453
1991	557	1,771	457	1,591	10	180
1992	339	1,094	259	940	80	154
1993	259	807	222	739	37	68
1994	286	868	210	737	76	131
1995	143	553	143	553	-	-
1996	167	593	126	538	41	5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도	미곡 생산량		논벼(水田)		밭벼(旱田)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7	129	573	129	573	-	-
1998	133	566	130	559	3	7
1999	171	633	138	577	33	56
2000	205	710	134	572	71	138
2001	644	1,897	127	595	517	1,302
2002	658	1,574	114	444	544	1,130
2003	748	1,968	85	330	663	1,638
2004	1,071	3,049	61	271	1,010	2,778
2005	1,208	2,863	51	213	1,157	2,650
2006	927	2,352	43	186	884	2,166
2007	1,063	2,632	35	134	1,028	2,498
2008	945	2,708	32	149	913	2,559
2009	1,333	4,018	25	118	1,308	3,900
2010	1,119	2,895	24	82	1,095	2,813
2011	430	1,145	17	71	413	1,074

(출처: 남인희, 1985; 제주통계연보(1976-2012) 내용을 발췌 후 재구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인터뷰 - 하논 답사 인터뷰 내용

인터뷰 일시: 2014년 3월 15일, 21일

인터뷰 대상: 이종근(65 歲): 현 하논 경작인

1차 인터뷰(2014. 3. 15)

Q. 물은 어디에서 끌어오나요?

이종근(이하 이): “물은 일 년 내 나요. 여기가 천연수가 나요.”

Q. 한 7만평 된다고 하던데.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2만평 조금 넘어요.”

Q. 소유주가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육지 같지 않아서 인력을 사도 (벼농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Q. 농사는 몇 년 하신 거예요?

이: “제가 한 15~6년 되었어요. 제가 육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데 제땅이 적기 때문에 넓은 땅에서 지으려고 여기로 왔어요.”

Q. 그럼 토지 다 직접 사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니요. 저도 육지에서 교육받으러 내려왔다가 노는 땅이 있어서 그냥 지었어요.”

Q. 아 여기 노는 땅이 많았어요?

이: “아 여기 다 놀잖아요. 여기도.”

Q. 그럼 혼자 다 지으시는 거예요?

이: “네”

Q. 그럼 이 감귤 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다 개인 개인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Q. 아 그럼 저기 마을 사람들은 (논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 “네”

Q. 그전에도 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네요.

이: “그전에는 마을에 몇 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농기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정도 넓이 농사지으려면 농기계 값만 1억이 넘어요.”

Q. 여기 그러면 땅 주인은 몇 명이나 있어요? 많다고 들었는데.

이: “네. 제가 만나는 사람만 해도 백 명이 넘어요. 여기가 논 여기(작은 구획) 하나당 주인 하나에요. 여기가 마소 매어놔서 천지연으로 오염된 물이 내려간다고 시장이 부탁해서 농사짓는 거예요. 이 물이 더럽게 내려갔었거든요.”

Q. 그런데 폐답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임대료를 주나요?

이: “네 조금이라도 줘야지요. 다해서 한 4~500백(만원).”

이: “제가 여기 초창기 시작했을 때 여기 다 풀밭이었어요. 논 안했었고.”

Q. 십몇 년 전에 오셨다고 하면 딱 2000년대쯤이겠네요.

이: “한 97년쯤인가... 98, 97...”

Q. W.C.C.(World Conservation Congress)와 관련해서 사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일본에서 많이 와요. 지질조사 같은 거 많이 오던데. 안온지가 한 삼년밖에 안돼요. 그 전까지는(계속 왔어요).”

이: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시장님께서 여기 공원 된다고 (해서) 한 삼년만 하면 일당 충분히 손해본거 보상까지 된다고 해서 그때 기계도 반값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군인까지 대주고... 일손 부족하다 그러면.”

Q. 그러면 여기 쌀 생산한 다음에는 (어떻게 유통되나요?)

이: “쌀은 잘나가요. 그냥 여기서 찧기만 하면. 여기서 도정해가지고. 그리고 비축미로 정부에서 사가는 것 좀 있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차 인터뷰(2014. 3. 21)

Q. 수확량이 얼마나 되나요?

이종근(이하 이): “2만 2~3천 평정에서 천가마나 천이백 가마요.(한가마가 80㎏짜리죠?) 아니요 40㎏요. (그럼 대충 한마지기에는 얼마에요?) 한마지기에 열 가마요. 이백 평에 열가마정도요.”

Q. 모내기는 장마철에 하시죠? 생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네. 한 삼개월이요.”

Q. 이모작은 가능한데 안하시는 건가요?

이: “아니요. 이모작은 할 수가 없어요.”

Q. 소출한 쌀은 어떻게 하나요?

이: “여기서 도정해가지고 나가고 정부 비축미로도 좀 나가고 그래요.”

Q.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나가요?

이: “아니 그게 아니고 답주들은 평당 이백원씩나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요?) 그게 평당 이백원씩 답주들에게 준다구요. (쌀로 달라고는 안해요?) 쌀로 달라고 하는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에 비율해서 주지요. 그리고 여기는 실은 안가져가고 논 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안 벌면 그냥 다 묵어버리는 땅인데.”

Q. 전에 농사짓던 사람들은 언제까지 농사지었는지 아세요?

이: “안 번지가 한 칠팔년정도 됐나? (그럼 그분들 그만두고 농사짓기 시작하신 거에요?) 아니요. 그분들하고도 같이 짓다가 그사람들은 농기계가 없어서 못한거예요. (선생님 오셨을때 폐작됐다고 안하셨어요?) 아 그 사람들은 저기 몇 평 안 벌었었어요. (아 저기 조금만. 저기 폐작된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폐작된데 그 근방 좀 벌고, 저기 위쪽에 좀 벌었었고. 그러다가 여기 싹 벌다가 그사람들이 안번게 여기 싹 줄어버렸지.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연세가 팔십 다 되어가지요.”

Q. 정부미로는 얼마나 나가요?

이: “작년에 835가마요?” (한 1/4은 나가네요) “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Q. 하논 분화구 복원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부터 한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은 됐으면 좋겠어요 안됐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사람은 되어도 상관없고 안되어도 상관없고.”

Q. 수입은 괜찮으세요?

이: “아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괜찮다고 하면 괜찮고.”

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인터뷰 - 중문 천제연 답사 인터뷰 내용

인터뷰 일시: 2013년 6월 4일

인터뷰 대상: 이성무(73 歲): 중문 향토지 '불란지라 불싸지라' 저자.

Q.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정근오입니다.

이성무(이하 이): "우리가 오늘 가볼데는 물골이 세 개거든? 천제연 양쪽 가에 물골이 세 개 있는데, 동쪽에 두 개 있고 서쪽에 하나있는데이, 서쪽에 있는 것이 섯골수로인데 가장 먼저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중간에 보면 완전히 조면암질 기반암이라서 이 물길을 뚫는데 완전히 고생을 했는데. 여미지 이짝을 만들면서 완전히 매워버려서 (손실됐다)."

이: "내가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불란지라 불싸지라」 153p) 자료는 1968년 교직에 처음 입문 했을 때 받은 건데 일가친척 중에 아주 유능한 분이 있었단 말이여. 그래서 그분이 들려준 걸 내가 다 기록한 거라 이건 아주 정확한 거란 말이야, 연대가. 벌써 1968년에 조사한거니깐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야? 내가 스물일곱 살 아홉 살에 한거니까. 벌써 칠십이 넘었으니깐. (섯골은) 1893년 계사년에 색달리에 사는 김천총(김을생의 부친)이 착공 했었으나 자본 부족으로 중지되었다가 후에 대정군수를 지냈던 송경연씨가 인계를 받았어. 인계를 받았어. 완성시켜 개여물캐, 개여물케가 어디냐면 지금 마린파크 있지 않아? 그때는 거기를 개여물케라고 그랬어. 한자로는 개유수로 썼더라고이, 토지문서에는 개유수로 적혀있더라고이. 당시 공사방법 보면은, 암반위에 장작을 태워 달궈놨다는 말이야이, 그 다음에 소주를 부어, 글쎄 그때 당시 소주가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이... 말로는 독한 소주를 부어서 돌을 달궈 찬물로 급속 냉각시키면서 수축팽창 패창수축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암반을 깼어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화약이 없었어이, 중앙에서는 무기로 썼겠지만은 여기서는 토목공사에 쓸만한 화약이 없었단 말이야이. 그래서 조상의 지혜가 대단했다는걸 볼수있는데... 이것이 5년 걸렸어. 게난 밤낮 겨울여름 할 거 없이. 1887년이 아니라 1897년. 이것이 잘못된단 말이여 정유년. 그래서 이거 보면 1893년부터 97년까지. 정유년에 완성했다 이렇게 해있거든. 이걸 정확히 알아놨둬야지이. 동골, 아까는 섯골이었지만은 이건 동골. 그러니까 이건 천제연 동쪽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이. 광무 1년 그러니까 대정군수하다간 채구석 씨가 있어이 아주 애경유지 말이여, 우리나라 애경유지. 그 후손들이 채씨야 아마. 아주 유명한 분이야이. 그 사람이 중문에 살았는데이 중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 채구석이란 사람의 묘가 어딨냐면 저 색달지경 군랑케라는 곳에 묘가 있더라고이, 이 사람이. 그래서 천제연 물을 보면서 이 물을 이용한다면은 만인을 살릴 수 있다. 이 만인 이란 것이 일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이. 많은 사람들을 쌀밥을, 그때 그 쌀이 참 귀했잖아이. 제주에는 쌀이 하도 귀해서 여자들 시집가기 전에 쌀 한줌어치만 먹고 시집가면은 그건 복이 참 좋은 사람이고이. 근데 제주도에 논이 어디 있었냐면은 강정이 있었고, 강정이 물이 풍부하니까. 하논에도 있었고, 안덕에도 대평리랑 화순 거기쪽에도 논골이 하나 있더라고이. 근데 거기는 퇴적암이여이 사암 퇴적암속으로 물골이 뚫렸더라고이. 근데 조면암 뚫는거랑 사암 뚫는 거랑은 천지차이여, 일허는게. 지질공부하니까 잘 알겠지이. 그래서 내가 참고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할거냐... 현지답사하면서 막 고민 한거지이. 예전에는 뭐 할라면은 토신제 지내잖아이. 사고나지 말라고 막 토신제 지낸단 말이여. 거 1907년에 착수하여 1908년, 게난 2년동안 밤낮 매달린거야이. 근데 그뒤 오름골 뱅 돌아간거 보면은 좀 쉬운지역도 있지만은 절벽에 해놓은거 보면 무너지지 않을까 했는데 거 안무너지대. 거 굉장히 힘든 지역이야 오늘 가볼데는. 이짝(동골)에는 1905년 되니까는 이때는 그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서 1910년에 합병 됐잖아이. 그래서 그때는 제주사람들이 일본에 자주 왕래했어. 그래서 일본에서 화약을 구했어. 화약을 구했다고. 그리고 바위를 부숴야 하니까 곡괭이를 구했어. 곡괭이를 흔 배치 사왔다고 하니까 배가 얼마나 큰진 모르겠지만, 그거 아마 옛날 똑딱선이 아니고 풍선이니깐 흔 배 사왔다니까 몇백개 사왔겠지, 몇 개 사왔는지는 몰라. 말은 그렇게 전해이. 게서 화포도 사용하고 화포를 요즘같이 구멍 딱 뚫어그네 화포를 딱 끼워서 터트린 게 아니라 그때는 화포 사용법이 좀 서툴고 그러니까, 화약 성능도 떨어지긴 하지만, 뚫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정으로 뚫어서 쓰려고 보니까 깊이 뚫지도 못하고 하기 힘들었단 말이지. 가면 딱 2km인데 가면 길이 있어이. 저짝에 오름골이 어디냐면은 컨벤션이 있는데도 있고 제주국제평화센터 있는데 있지? 거기가 분화구라이 거기도 분석구가 있어이, 베릿내 오름, 거기도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분화구가 있어이. 옛날에는 거기 못도 있는데, 물이 고여 있었거든? 지금은 못이 메워져서 잡초있고 물도 없어."

이: "한참 후에 1923년에 알골. 알골은 알골은 2단 폭포에서 물을 받지이. 너배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컨벤션센터있지이. 거기가 너배기. 넓은 배기다 해서 너배긴데이 광백이라고도 했지만은 너배기라고 했어이, 이 뜻을 알아야해이. 이땐 호근리 이재하씨와 대포리 이태욱씨가 협력한 공이 크다. 이때 당시에 참가한 성인의 품삯은 일당 3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일당 3돈이고이. 논을 만들 면은 물을 나눠주는 값으로다가 1/2를 물 공사한 사람한테 나눠줬대.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거기로 주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물골 만드는 돈으로 썼대. 논 가격의 반을 지불한거지. 논은 평평하게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논판을 만들어야 돼이."

이: "성천이란 것은, 별 성자에다가 내 천자 썼는데, 옛날에는 베릿내. 그냥 별을 한자화하면서 그렇게 썼는데, 대동여지도에 성천이라고 했는데이..."

이: "옛날에는 쌀이 매우 귀해서이 논 한평이면 밭 세평, 세 배를 가져와도 안 바꿔줬어. 논이 그렇게 귀해서이. 그래서 논가진 사람들은 전부 부자여. 부자들은 전부 강정에 논 조금 갖기를 원했거든. 그래서 이짝에서는 쌀밥을 좀 먹고. 조상들 제사 그런거 대소사를 이런 거를 처리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잖아이. 쌀이 얼마나 귀했냐면. 저짝에 없는 데는 뭘 했냐면 밭벼, 산디라고 하는 밭벼가 요즘에는 품종이 개량돼서 잘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논벼랑 쌀 질이 달랐거든. 그래서 논이 비싸고 그래서 논이 없는 사람들은 답주들에게 사정을 해서 임대를 해이. 임대를 하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지만은 예전에 임대를 하면은 쌀 10을 생산한다고 하면은 답주들은 7을 가져가고 소작인한테는 3밖에 안와. 근데 이마저도 답주가 기분 나빠서 저사람 하지 말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해서 가을되면 갈치도 굽고 해서 답주를 잘 먹이고 해서 논을 벌곤 했는데이. 우리도 어릴 때 소작을 해봤거든 그러다가 농약 중독돼서 죽다 살았는데. 예전에 해남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해남 땅이 좁아서가 아니고, 지주들이... 소작하던 사람들은 일구고 나면 지주들 주고 자기는 먹을 게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이 내려왔다가 그 사람들 중에는 일하는 게 잘돼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답주들이 너무 독하게 해서 그랬거든. 예전에는 밭세배 준다고 그랬지?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반대로 절대농지로 묶여서 과수원 값으로도 안줘. 벼농사는 이제 일체 안 해. 나도 하우스 하는데 벼농사는 일체 설른지(그만둔지) 오래돼."

Q. 다랭이논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돌 같은거 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논이 귀하니깐은 (다랭이논은 물이 잘 빠졌죠?) 어 물이 잘 빠져버려. 육지 땅이랑은 달리 물이 잘 빠져버려.

Q. 여기 땅은 다 국가 땅이 된거에요?

이: "아 관광지마다 다 매입해 버리니까.. 지금 국가 땅이 아니라 관광공사 땅이지. 지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부영도 있지. 관광공사에다 매입하고 관광공사가 되팔았지."

Q. 수확한 쌀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이고 그 당시에 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쌀값이 좋으니까 내다팔고, 없는 사람들은 제사 때 써야 해서 팔아보지 못했어. 쌀값이... 옛날에는 자기 소하고 쟁기 가져가서 하루종일 밭갈아도 세경을.. 넉 되. 제주는 넉되가 한 말이야이. 그러니까 쌀값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이? 금값이야 금값.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논가지면 부자지. 오름골에 논가지면 완전 부자야이."

Q. 농사지을 때 예전에 비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 옛날에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나무이.. 팽나무 같은거 순이 나오면 그거 가지를 잘라서 쓰더라고이. 나중에 비료 나오면... 좋지이. 잘됐지."

Q. 여기는 통시는 안쓰셨어요?

이: "아 돗거름은 보리 갈 때 써. 보리. 보리 갈 때 써서이 마을에 돗거름을 파내, 그걸 소하고 말하고서 밟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보리 씨 같이 뿌려서 비료도 같이 넣고 해서 그걸 밭에 전부 실어 날라서.. 소에다가 돗거름창이라 그래. 두덩어리. 요만큼한거 두덩어리 그걸 밭에 날라서 펴놓으면은 여자들이. 아버지가 밭갈면은 어머니들이 그걸 밭에 뿌리거든. 그게 보리가 되는거지. 논엔 옛날에 보면 갈퀴덩쿨(자운영)이라고 해. 자운영. 그걸 갈아서 썩여서 거름으로 쓰더라이. 팽나무는 모판 만들때이. 모판 만들 때 쓰더라이. (화학)비료는 60년대 나왔지이. 50년대는 안나왔고... 그때는 값이 비싸서 비료 한두포 사기가 비쌌거든. 비료는 육지 나온 시기랑 비슷할거야."

Q. 피 뽑기 같은 건 안하셨어요?

이: "어 그렇지 했지. 논일 하다보면 굉장히 힘들지. 농약 하다보면, 농약 같은게 없으니까 폐유해서 그거 아주. 나는 67년 8월 15일 아주 죽다 살아났어. 농약 호리들 깡그리 뿌려놨다가 아주 4시간동안 죽다 살아난 사람이야."

Q. 수감을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규칙같은게 있었어요?

이: "잘은 모르겠는데, 모내기할 때 수감이랑 의논해야 해. 물도 가물때는 부족해서 아무때나 쓸 수 없었어. 상류쪽에 있는 논은 물도 먼저 댈 수 있어서 농사도 먼저 할 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었는데, 하류쪽은 물을 나중에 대야했기 때문에 농사지을 시기를 맞추지 못할 때도 있었지. 그래서 오름골 논이 토질이 좋으니까 너배기 논보다 더 알아줬어. 근데 여기 논(아흔아홉판 다랭이논)은 논이랄것도 할거 없이 맨 자갈이라서 그래도 논이라고..."

이: "수감은 옛날에 나락으로 얼마씩 줬다고 했는데. 답주마다 평씩 얼마해서 주더라고. 한번 정하면 몇 년 하더라고. 딱히 임기가 정해진 건 아닌데, 매년 수감을 바꾸면 잘 모르니까."

Q. 유통 및 소비는 어떻게 했었나요?

이: "장에다가 내다 팔았는데, 잘도 비쌌어. 오일장에다가 팔면은 잘도 비싸지. 근디 소작한 사람들은 팔 것도 없고.. 자기 집 제사 모시려면은. 예전에는 사람 돌아가시면은 3년 상 했잖아이? 소상, 대상하고 초하루, 보름... 상망이라해서 초하루에도 제지내고 보름날에도 지내고이. 제사는 쌀들어 갈데는 많아이. 쌀이 하도 귀한 집은 상에 올릴 건 반만 쌀밥하고 반은 보리밥해서 올리기도 했지. 근데 그 쌀 못먹어 본 사람도 많아.

Q. 제주에서 빵은 언제부터 제사상에 올리기 시작한거에요?

이: "빵? 빵은 중간에 밀빵.. 거 중간에 밀가루 들어와서 하고. 그전에는 빵 없어. 곤떡이라 해서 쌀로 만든 떡. 동그라미하고 반달 네모. 그거 뜻 알아져? 동그란 떡은 태양을 의미하고 반달은 달을 의미하고 사각에 다섯 점이 붙어있는 떡은 우주를 상징해. 그런 의미가 있어이. 부잣집에서는 딱해서 올리고 하고... 층떡이라고 해서 시루떡처럼 층으로 그런거 해서 올리고... 없는 사람은 제사하면 고사리나 무나 콩나물을 기본으로 올리고 바닷고기 하나 메밀묵 찌거나 쑤거나 하고, 돼지고기 몇 점놓고 했어. 상이 초라했지. 밥은 쌀밥으로.., 상에 올라가는 거는 전부 쌀로 해서 올렸어. 국은 바닷고기 갱국해서 올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해서 올리기도 했지. 육지처럼 다양하게 하질 못했어."

Q. 제사상에 적이 많던데요. 육지는 꼬치를 하나도 안하거든요.

이: "어 바닷고기도 꼭 생선을 써야하고이. 고기도 길게 산적으로 해서 꽂고이. 묵은 넉 점으로 꿰고... 식물은 짝으로 꿰고 고기는 다섯 점으로 홀수로 꿰고이... 고사리를 올리는 이유는 꺾어도꺾어도 자라니 자손이 무럭무럭 번창하라고, 콩나물은 쑥쑥 자라나라고이 그런 의미가 있어. 하하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인터뷰 - 강정 답사 인터뷰 내용

인터뷰 일시: 2014년 3월 21일

인터뷰 대상: 김갑득(75 歲): 강정 노인회장, 윤광제(75 歲): 강정 노인부회장.

Q. 강정에서 언제부터 벼농사를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갑득(이하 김): 언제부터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오래됐으니까요?) 응

Q. 어르신께서도 농사 지으셨었어요?

김: 응

Q. 그럼 논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논이죠? 조선시대때부터

김: 강정이 제주도 기록을 보면 금년도 467년인가 되는데 기록문헌인가 올라있는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벼농사가 이루어진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Q. 규모가 어떻게 됐나요?

김: 전체규모? 규모가... 우리가 평수로 따져서... 한 삼십.. 삼십만 평정도 될까? 강정논들 논 면적이 총 35만평 정도는 되이?

윤광제(이하 윤): 응 맞어.

Q. 화학비료 들어오기전에는?

김: 제초할때는 아주옛날에는 손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조금 발달된게 이렇게 미는게 있어. 우리때는 이렇게 밀었거든. (그게 언제 들어왔어요?) 그게 한 삼십년... 우리가 삼십대였으니까... 우리가 스무살때니까 한 사십년...

윤: 그 벌레들 있으면...

김: 벌레잡는건 농약이 없었으니까 폐유같은거, 중유! 중유같은걸 병에 담아 다니면서 방울로 떨어트리면 이게 뜨잖아 몽둥이를 가니고 다니면서 벌레를 떨어트리면 그게 방제지.

Q. 모심을땐 이앙법을 하셨죠?

김: 모 심을땐 처음에는 이앙법이 아니라 그냥 되는대로 심었고...(그냥 씨를 뿌린 건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요?) 아니 처음부터 묘를 심었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심었다가 나중에 줄지어서 심었지. 그전에는 잡파라고 삼파(산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꼽아놓는 걸로 했는데 미는 기계를 쓰지 못해서 손으로 다 뽑아야하니까.

Q. 비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김: 비료가 그 당시에 있었어게.

윤: 비료 그거 반으로 해그네 저... 키로로 갈라.

김: 저 내 기억으로는 그 비료라는게 내 마음대로 살수있는 게 아니고 강정동이라고 하면 강정동에 100키로 이렇게 마을대로 배정이돼. 그럼 이걸 농가별로 다 나누는거야 (그게 그럼 마을별로 내려오는거에요? 그건 누가 주는거에요?) 그게..

윤: 정부에서

김: 정부에서 줬던가.. 정부에서 줬겠지 뭐...(아 주는거에요) 응

Q. 그전에는 생풀을 뜯어서 사용하거나 그런건 없었어요?

김: 아 못자리(모판). 못자리는 나무풀 뜯어가지고 (나뭇풀이요?) 응 나뭇풀 뜯어가지고 밑바닥에 깔아가지고 그지 응 거름 역할이지 그걸 깔아가지고 못자리를 만들었어(팽나무요?) 어 팽나무 팽나무 주로 팽나무를 많이 썼어. (자운영은 거름으로 안주셨어요?) 아 자울령, 그것도 마찬가지.

윤: 자운영 해그네 영 이렇게 깔아서 발로 이렇게 밟아서 묻어지면은 그 위에 나중에 나록씨(볍씨)영 뿌련. (아 그럼 모판 만들 때 쓰신거예요?)

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넓으니까 다 못하잖아 그건 묘판만, 묘판만. (그러면 비료 들어오기 전에는 따로 거름 못주셨던 거예요?) 거름 못줬겠지, 그건 우리 세대 전이니까.. 못줬겠지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Q. 모내기는 언제 하나요? 장마철 때?

김: 응. 장마철 때. (모는 석 달 정도면 크나요?) 묘한 두 달. 이 개월이면 돼.

Q. 품종은?

김: 품종은 생각나는 게 그 밥맛 좋은거.

윤: 팔금이라는거

김: 어 팔금. 팔금 그거 향 좋고 맛 좋고. (그럼 맛이 좋아서 팔금으로 하신거에요?) 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어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동네잖아. 옆집에서 팔금으로 밥을 지으면 동네가 냄새로 다 알 수 있어. 그 정도로 향이 좋았고 맛이 있었어.

Q. 이모작은 안하셨죠?

김: 여기는 안했어.

Q. 소출은요?

김: 소출... 우리 아는 정도는

윤: 가마니로 우리는 가마니로

김: 얼마나 나왔어?

윤: 그게 백 평에 하나반이신가 (백평에 하나반이요? 혹시 백평에 하나반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소비를 하셨나요 판매를 하셨나요?)

김: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벼라는 게 없었잖아. 알다시피 제주도에서는 쌀밥을 먹어 본 적이 강정밖에 없어. 그때는 육지에서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거의 다 팔았지.

윤: 서귀포 장에 가서, 그거 팔면 돈이 되니까.

김: 그거팔면 돈이 되니까. 잘사는 집은 보리쌀 8이면 쌀 2 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팔았지.

Q. 시세는요?

윤: (그때는...)

김: 쌀 한 말 정도 팔면.... 허허허 알 수 가 있어야지...

윤: 쌀 한 말 팔면...(보리 서 말은 받나요?)

김: 보리 서 말은 더 받지... 보리 서 말은 택도 안 될거야.

윤: 그거 팔면은 돈이 됐다고.

김: 돈이 그것밖에 없어.

윤: 돈이 나올 데가 그거 밖에 없어

Q. 여기는 다 자기논인가요 소작인가요?

윤: 소작도 하고

김: 소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강정에서는 옛날 부자 같으면은논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많이 가져버릴거 아니야. 그런게 없었어. 많아봐야 천한 오백평 정도.. 평수로 따져서.. 많이 가진사람이... 그런사람이 불과 몇사람이야. 그러니까 골고루. 한 삼백평. 사백평 다 그정도 가졌어 강정사람들 전체가. 또 없는 사람들 소작도 하고. (소작할 때 소작비는 잘쳐줬나요?) 소작비야 어떻게 했는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윤: 소작하면 갈라, 갈라.

김: 그게 비율이 어떻게 갈라신지.

윤: 거의 반갈라실거라. 반갈라실 건데 논임자가 더 생각하면 한가마니정도 더 얹어주고.

Q. 몇가구정도가 논농사를 했나요?

김: 강정이 그 당시 600호 600호 했는데 500호로 봐도 450가구는 전부 벼농사를 지었다고 봐야지. (그럼 35만평 정도 되는 땅에 450호가 농사를 지었다? 이거죠) 어.

Q. 벼농사랑 관련된 속담이나 민담 아시는거 있나요?

김: 제주도 속담에 “제주도 처녀가 시집 갈 때까지 쌀 서 말을 먹고 시집가면 한이 없다”고 했거든, 그러면 쌀은 거의 먹지 못했다 이거 아니야.

윤: 거의 다 시장에 팔았어. 먹은 것은 없고...

김: 자급자족한건 없고 거의 다 돈이지.

윤: 그거 팔면 돈이 되니까.

Q. 벼농사는 언제 끝나나요?

김: 70년대 됐어.. 70년대 되면서 끝났어. 쌀값도 떨어지고 마음껏 돈만 내면 사먹으니까 벼농사만 해서는 돈이 안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작물로 대체하게 된거지. (예를 들면) 하우스에서 (미나리 같은거요?) 미나리는 별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밀감이라든지 하우스작물. 밀감으로 주로 바꿨지. (논이면 물이 많을 텐데 밀감농사가 돼요?) 논은 강정은 천수답이고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용솟음치면 논에 물을 받으려고 물골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만들어가지고 물을 받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버리면 물이 안 흘러가잖아. 원래 마른땅이 돼버리잖아. (지금도 마찬가진가요?) 지금도 하우스 해서 농사하지. (미나리는 안하시나요?)

윤: 미나리는 저...

김: 미나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을 빼도 물이 계속 고이는 곳은 미나리를 해. (다른걸 못하는 데는 미나리를 하는 건가 보네요.)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다른 걸 하겠지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물이 고이는 곳은 미나리밖에 못하지.

Q. 지금 보실 때는 과수원으로 바꾼게 더 잘 된 것 같나요?

김: 그렇지 수확량으로 봤을 때는.

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